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 논문

국어 부정수 표현 연구

—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윤수연

2024년 2월

김 유 범 교 수 지 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국어 부정수 표현 연구
－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고 려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국 어 교 육 전 공

윤 수 연 (인)



윤수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23년 12월

위원장 김 유 범 (인)

위 원 이 관 규 (인)

위 원 정 재 림 (인)



국어 부정수 표현 연구

—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윤 수 연

국 어 교 육 전 공

지도교수: 김 유 범

초록

본 논문은 부정수 표현(不定數 表現)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수량 표현과 부정수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부정수 표현’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부정수 표현의 유형을 구성 방식과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부정수 표현을 크게 3가지, 세부적으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에서는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으로 나누었다.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은 다시 수사 및 수 관형사로만 구성된 유형, 다른 품사와 함께 단어를 이루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한둘, 몇’, ‘-남은, -쯤’ 등이 속한다.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관형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명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부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으로 세밀히 분류했다. 여기에는 ‘약, 한’, ‘최소, 최하’, ‘거의, 대략’ 등이 포함되었다.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긴 유형, 부정의 의미가 명사구에 담긴 유형, 부정의 의미가 동사에 담긴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여기에는 ‘이상, 내외’, ‘일부, 대부분’, ‘넘다, 되다’ 등이 속한다.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세부적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



저 기준점의 수와 종류에 따라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으로 나누었다.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은 다시 참값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과 참값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한둘, 수-’, ‘-남은, 남짓’ 등이 속한다.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은 기준점을 포함하는 유형,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유형, 기준점에 수렴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최소, 이상’, ‘초과, 웃돌다’, ‘거의, 일부’ 등이 포함되었다.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은 어림수를 제시하는 유형과 교차점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대략, 정도’, ‘내외, 전후’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구성 방식과 의미 범위에 따라 분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 부정수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주제어: 부정수 표현, 부정수, 부정수사, 어림수, 수사, 수량사구, 수량 표현, 복합어, 어휘 분류



A Study on
Korea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 Focused on Type Classification –

by Suyoun Y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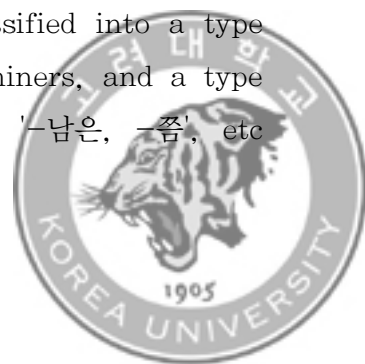
major i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Yu-Pum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Korea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This paper clarified the academic terminology,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based on reviews of prior research about quantity expression and indefinite quantity expression. On that basis, determined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bout indefinite quantity expression. It was composition method and range of meaning.

Based on the composition method,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main types and eight detail types. The main classification was divided into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in one word,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preceded by indefinite expressions,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followed by indefinite expressions.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in one word were classified into a type consisting only of sum numerals or quantifying determiners, and a type consisting numerals and other word class. '한둘, 몇', '─남은, ─쯤', etc



belongs here.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preceded by indefinite expressions was classified into a type of modifying quantifier phrase by determiners, a type of modifying quantifier phrase by noun, and a type of modifying quantifier phrase by adverb. '약, 한', '최소, 최하', '거의, 대략', etc belongs here.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followed by indefinite expressions was classified into a type in which the meaning of indefinite is contained in nouns, a type in which the meaning of indefinite is contained in noun phrases, and a type in which the meaning of indefinite is contained in verbs. '이상, 내외', '일부, 대부분', '넘다, 되다', etc belongs here.

Based on range of meaning,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main types and seven detail types. According to number and type of reference point, the main classification was divided into range-limited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one-sided distributio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two-sided distributio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Range-limited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as again classified into type in which true values were evenly distributed, and type in which true values were unevenly distributed. '한둘, 수-', '-남은, 남짓', etc belongs here. one-sided distributio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as classified into a type including a reference point, a type not including a reference point, and a type converging on the reference point. '최소, 이상', '초과, 웃돌다', '거의, 일부', etc belongs here. Two-sided distributio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as classified into a type that presents an approximate number and a type that presents an intersection. '대략, 정도', '내외, 전후', etc belongs here.

Finally, the results of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method and the range of meaning were summarized in a table and distribution was analyzed. After that, it was suggested that additional



research and school curriculum on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were needed.

Keywords: Indefinite Quantifier Expression, Indefinite Number, Indefinite Numeral, Approximate Number, Numeral, Quantifier Phrase, Quantity Expression, Compound, Classification of Vocabul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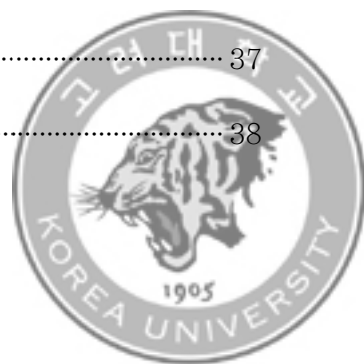


목차

초록	i
Abstract	iii
목차	v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ix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2.1. 수량 표현에 관한 연구	2
1.2.2. 부정수 어휘에 관한 연구	4
1.2.3. 부정수 표현에 관한 해외 연구	7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2. 수량 표현과 부정수 표현	12
2.1. 수량 표현의 구성	12
2.1.1. 수량사의 개념	12
2.1.2. 분류사의 개념 및 기능	13



2.1.3. 수량사구의 구성 유형	16
2.2. 부정수 표현의 개념	17
2.3. 부정수 표현의 특성	19
3. 구성 방식에 따른 부정수 표현 유형	21
3.1.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21
3.2.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	22
3.2.1. 수사 및 수 관형사로만 구성된 유형	22
3.2.2. 다른 품사와 함께 단어를 이루는 유형	28
3.3.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	30
3.3.1. 관형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30
3.3.2. 명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30
3.3.3. 부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32
3.4.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	33
3.4.1.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긴 유형	33
3.4.2. 부정의 의미가 명사구에 담긴 유형	34
3.4.3. 부정의 의미가 동사에 담긴 유형	35
4. 의미 범위에 따른 부정수 표현 유형	37
4.1.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37
4.2.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	38



4.2.1. 참값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	38
4.2.2. 참값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	43
4.3.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	45
4.3.1. 기준점을 포함하는 유형	45
4.3.2.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유형	51
4.3.3. 기준점에 수렴하는 유형	53
4.4.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	59
4.4.1. 어림수를 제시하는 유형	59
4.4.2. 교차점을 제시하는 유형	62
 5. 결론	 64
 참고문헌	 67



표 목차

〈표 1〉 부정수 표현의 유형	65
------------------------	----

그림 목차

〈그림 1〉 ‘서넛’의 의미 범위	39
〈그림 2〉 ‘삼사십 미터’의 의미 범위	39
〈그림 3〉 ‘몇 개’의 의미 범위	41
〈그림 4〉 ‘십수 년째’의 의미 범위	41
〈그림 5〉 ‘수십 가지’의 의미 범위	41
〈그림 6〉 ‘삼십만 원대’의 의미 범위	42
〈그림 7〉 ‘여남은’, ‘십여’의 의미 범위	43
〈그림 8〉 ‘사십 이상’의 의미 범위	46
〈그림 9〉 ‘열아홉 명 이하’의 의미 범위	47
〈그림 10〉 ‘10등 이내’의 의미 범위	49
〈그림 11〉 ‘최소 여섯 명’의 의미 범위	49



〈그림 12〉 ‘최대 6%’의 의미 범위	50
〈그림 13〉 ‘240kg 초과’의 의미 범위	51
〈그림 14〉 ‘25g 미만’의 의미 범위	52
〈그림 15〉 ‘50달러의 일부’의 의미 범위	54
〈그림 16〉 ‘299명 중 과반수’의 의미 범위	55
〈그림 17〉 ‘5만 마리 중 다수’의 의미 범위	55
〈그림 18〉 ‘30명 중 대부분’의 의미 범위	56
〈그림 19〉 ‘십 년이 다 되도록’의 의미 범위	58
〈그림 20〉 ‘약 2도’의 의미 범위	60
〈그림 21〉 ‘근 나흘’의 의미 범위	60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국어의 부정수 표현(不定數 表現)을 모아 살피고, 유형을 분류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정수 표현은 값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개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국어 사용자들은 일상 대화에서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한 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적인 서술에서도 정확한 값을 찾지 못했을 때 부정수 표현을 사용하여 대략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익히기 어렵지 않으며 국어 화자라면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문맥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동안 각 부정수 표현이 어떤 의미 범위를 갖는지, 그 표현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정리된 바가 없어 국어 능력을 키우는 중인 어린 화자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 몇몇 표현은 학식을 갖춘 성인 화자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기도 하였다.

수사 어휘는 전체 어휘의 0.05% 정도에 불과하고 대명사, 관형사 등의 어휘와 유사점이 나타나 의미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수 관형사와 의미가 일치하는 점 때문에 수사라는 품사를 규명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낮은 비율과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생활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와 수 표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휘에 대한 연구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수와 관련된 단어들의 품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왔다. 이는 품사 분류에 있어 형태와 기능만으로 수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미 기준을 통해 수사라는 품사를 분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국어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는 특히 더욱 부족했다. 부정수는 수사 및 수 관형사로만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품사의 단어들과 어구를 이루어 다채로운 표현을 만들어낸다. 부정수 표현은 서양의 언어에서보다 동양의 언어에서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어로 된 부정수 표현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화자에게 즐겨 사용되고 있어 더욱 연구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부정수 표현을 최대한 모으고, 그 유형과 각 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국어 학습자들이 더 풍성하면서도 적절한 부정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부정수는 수의 일종이므로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 관형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구 범위 설정을 위해서도 수사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부정수, 혹은 부정수 표현 전반을 다룬 선행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남은’, ‘여러’ 등 부정수를 나타내는 어휘를 다룬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연구 중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를 탐색하고, 부정수 표현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부정수 표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1.2.1. 수량 표현에 관한 연구

채완(1983)은 수량사구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먼저 국어 수사 체계에 대해 논하고 수사와 분류사의 고유어/한자어 여부에 따른 조합 가능성을 연구했다. 또한 명사, 수사, 분류사의 어순과 분류사의 유무에 따라 국어 수량사구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채



완(1982)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채완(1982)은 수량사구의 통시적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이미 채완(1983)의 내용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으나 Q-N 수량사구 형태가 국어 수량사구의 기원적인 형태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후 채완(1990)에서 분류사의 개념과 기능,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분류사의 결정 요인, 기능에 따른 분류사의 유형 분류에 대해 세세히 살펴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류사를 조명하는 한편 수량사구 연구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

이남순(1995)은 수량사 구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해결하려 했다. 이 연구는 이남순(1992)에서 제시한 수량사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어 수량사 구성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명사와 분류사의 구별 기준에 대한 것이다. 분류사는 썸의 대상을 수량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썸의 구성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수량사 없는’ 수량사구가 특징적인 쓰임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어떤 분류사가 ‘명사+분류사’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밝히려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쓰임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어서 가설을 세우는 데서 그쳤다. 세 번째로 수량부사 ‘모두’, ‘다’의 어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두’는 수량사 구성의 앞과 뒤에 나타날 수 있으나 ‘다’는 수량사 구성의 뒤에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네 번째는 분류사 없이 수사, 명사로만 이루어진 수량사 구성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구성이 완전한 형식을 갖춘 문장 안에 나타나면 어색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한정성을 덧붙이거나 휴지를 두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명사가 유정성을 띠는 등 하나하나가 개체적인 대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한송화(1999)는 전통적인 수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사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과 수사의 경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의미적 특성 부분에서는 수사가 명사처럼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수량 단위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관형사적 특성을 보인다고 기술했다. 다음으로 국어의 수량사구를 전치 수량사구와 후치 수량사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을 살피고 예문을 통해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치 수량사구와 후치 수량사구가 갖는 전리치는 동일하지만 서로를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수사와 수량



사구」라는 제목에 맞게 전반부에서는 수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수량사구를 다루고 있다. 두 내용의 연결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수사와 수량사구 전반을 보여주고 다수의 예문을 다루어 수사와 수량사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호철&이현희(2009)는 국어 수량 표현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먼저 수량사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제한하였다. 여기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수사와 수 관형사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언어 요소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량 표현과 관련된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수량사’를 제시했다. 그 후 수량사구에 대해 살펴보고 명수사(名數詞) 구성과 수명사(數名詞) 구성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에 대해 논했다. 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량사와 수량사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자의 견해를 덧붙여 논리적으로 수량사와 수량사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량사구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류사와 ‘의’의 출현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수량사구 연구에 큰 역할을 하였다.

리웨이웨이(2018:34-37)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을 대조하며 그 일부로 부정수를 다룬 연구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략수 표현 대조’라는 절에서 ‘개략수 표현’을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어 여러 부정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에 의한 개략수 표현으로 고유어 개략수 표현 ‘한둘, 두셋, 서넛, 두서넛, 너댓, 댓, 너더댓, 대여섯, 예닐곱, 일여덟, 여남은, ...’을 제시했고, 한자어 개략수 표현 ‘이삼, 오륙, 이삼십, 사오십, 천백, 천만, 만천, ...’을 제시했다. 그 외에 수사와 접사, 수사와 일반명사, 수사와 의존명사, 관형사와 수사, 부사와 수사에 의해 표현된 개략수 표현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현을 다루었다. 다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비교가 연구의 주된 목적이어서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1.2.2. 부정수 어휘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부정수를 다룬 논문을 살펴보았다. ‘부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



한 분야에 대해 연구한 이남순(1982)이 참고 가능한 자료 중 가장 먼저 부정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연구는 단수와 복수의 표시에 대해 논하며 부정수에 대한 논의를 곁들이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부정수는 명사+‘들’ 형태의 복수구성(複數構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량구성이 정수를 표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첩구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집집이’, ‘알알이’ 등과 같이 명사를 중첩하여 나타나는 형태로 셀 수 없는 명사에서 주로 나타나며 문장 내에서 수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 구성은 개별지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명수사구성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부정수를 나타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복수구성은 수명사구성의 개체집합적인 지시 기능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각 부정수, 정수를 나타내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들’은 명사가 아닌 문장 구성성분에 붙기도 하는데 이때는 ‘들’이 연결된 요소가 아닌 문장의 주체가 되는 요소가 복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어떤 구성성분에 ‘들’이 붙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제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며 글을 마쳤다.

김종욱(1992)은 복합어에 대한 연구이나 복합어의 일종으로 부정수 어휘를 일부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15세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에 복합어로 분류된 단어들의 어형을 분석하고 그 유형을 밝혀 복합어의 구조를 살피고 15세기 국어의 복합어 실상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복합어의 정의를 정리했고, 이에 따라 15세기 국어자료에 나타난 복합어의 구조유형을 품사별로 구별하여 살펴보며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 총 17개의 15세기 문헌 자료를 이용했다. 방대한 자료를 정연하게 나열하였고 부록으로 논문에 쓰인 단어들의 색인도 제공했다. 이 논문에서는 14개의 예를 들어 수사와 수사의 합성어인 복합수사에 대해 짧게나마 서술하고 있으며, 수사와 관형사의 복합어로 복합관형사 9개의 예를 다루고 있다.

김종욱(1992)과 비슷한 연구로 김수석(1996)이 있다. 이 연구는 15세기의 복합어 어형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것들이 갖는 문법적 특성 및 원리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복합어가 통사적 복합어보다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용언뿐 아니라 체언에서도 나타나며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보다 비통사적 복합어가 생산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수석(1996)의 논문 중 복합수사 및 복합관형사에 대한 예와 그에 대한 해설은 김종욱(1992)의 것과 일치하여 부정수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용주(1994)는 부정수 ‘여남은’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과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 특징을 사용하고자 했다. 먼저 연구의 기반을 닦기 위해 먼저 복합어와 합성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여남은’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했다. ‘여남은’은 ‘열에서 남은’으로 해석하면 합성관형사로 볼 수 있으며 부정수이다. ‘여남은’은 분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구어체에서 쉽게 공기(共起)되어 생산적이나 외래어와의 결합에서는 한자어 ‘여(餘)’가 쓰이는 것이 잘 어울려 호응된다. ‘남은’은 ‘스무남은’에서와 같이 고유 수사와 쉽게 공기되지만 ‘서른’ 이상의 고유어 수사와의 결합은 어색해져 30 이상의 부정수 수량 표시는 한자어 수사+‘여’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통사·의미론적으로 ‘여남은’을 분석하였다. 수사어들은 기본적인 의미 특성 외에도 갖가지 의미 특성을 가지고 구문의 의미론적 다양성과 통사적 사실에 관여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자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여남은’은 [수량·[존재·복수·부정칭·절대·집합]]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남은’을 복합어의 하나로 보고 그 문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정수 어휘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수 표현 연구에도 도움을 주었다.

위평량(2004)은 ‘여러’의 어원에 대해 살핀 연구이다. ‘여러’는 많은 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중세어에서도 같은 뜻으로 ‘여러’, ‘여러ㅎ’의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대어에서 ‘여러’는 ‘많은’과 혼용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많은’은 ‘만(萬)’과 관련이 있고 ‘여러’는 ‘열[十]’과 수효나 어떤 사실이 분명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형태인 ‘어’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여기서의 ‘어’는 ‘두어’, ‘너더맷’, ‘-어치’에서 나타나는 ‘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 외에도 ‘어’와 관련되어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을 나열하고, 모두 ‘명확하지 않은, 완전하지 못하여 무언가 부족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여러’가 현재 ‘많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가 ‘열쯤 되는’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부정수 표현에 관한 해외 연구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 드물기 때문에 부정수 표현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不定數’, ‘概數’, ‘Indefinite Number’ 등의 검색어로 해외 연구를 찾아보았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제목에 포함하는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나 부정수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언어학적 연구를 한 것은 거의 없었다.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그 외 언어를 사용하여 더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본에서는 隈江 月晴(1960), 隈江 月晴(1962)에서 유아, 정신박약아의 부정수량어 인식을 연구한 심리학 논문을 발견하였고, 室井 努(2001)에서 고문헌에서 사람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부정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의 Philip J Mohan(1984)도 비슷한 형태의 연구인데, ‘Indefinite Numb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미취학 아동의 수 표현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위한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부정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학계에서는 ‘부정수’라는 단어를 개념으로서의 부정확한 수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정확한 수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학, 과학, 의학 부문에서 ‘...부정수의 길이를 갖는...’, ‘...부정수의 검색조건 때문에...’, ‘...부정수의 텍스트 데이터가...’와 같은 용례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부정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법개론서에도 ‘부정수’ 혹은 ‘개수(概數)’ 항목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시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법 연구에서 부정수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부정수가 정의하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张静静(2007: 33)에 따르면 중국어 연구에서의 부정수는 다음과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부정수는 불확정한 수량을 나타내고, 이것은 불확정한 수량을 한 개의 모호한



개념으로 가능하게 하며, 또한 한 개의 정수의 주위를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둘러싸는 것을 가능케 한다.’¹⁾ 한편 개수(概数)는 어림수로 번역되는데 문법서에서 부정수라는 표현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또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부정수와 개수의 세부 항목들이 일치하고 있어 중국어에서 부정수와 개수의 개념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 문법 서적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대동소이하여 모두 옮겨 적지는 않았다.

한편 부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하기 전에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끼리 모을 필요성을 느꼈다.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았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부정수 표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중국 논문을 여럿 참고하여 분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刘月华 等(2001: 116~120)에서는 중국어의 개수(부정수) 표현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수연용(二数连用)이다. 수량사 두 개를 연달아 쓰는 것으로 이러한 부정수 형태는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도 나타난다. 두 번째는 수량사와 함께 개수 표지를 쓰는 것이다. 중국어에는 ‘来, 多, 把, 左右, 前后, 上下’ 등 여러 개수 표지가 있는데 수량사와 분류사 사이 혹은 수량사와 분류사 뒤에 쓰이며 미묘한 용법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는 한국어의 ‘몇’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几, 两’이다. 일반적으로 2~9의 숫자를 나타내며 ‘几’은 ‘十, 百, 千, 萬’ 등의 앞이나 ‘十’의 뒤에 결합할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개론서로 중국에서 쓰이는 부정수의 종류와 용법들을 자세히 보여주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와 각 유형의 이름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张静静(2007)은 진·한 시대 죽간과 비단에 나타난 부정수의 표시 형식과 발전에 대한 연구로 부정수를 부사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부정수(用副词等表示不定数), 수사만 사용하여 표시하는 부정수(单用数词表不定数), 두 수를 연속 사용하여 표

1) 不定数指的是不确定的数量, 这个不确定的数量既可能是一个完全模糊的概念, 也可能是围绕在一个定数的周围上下浮动。



시하는 부정수(兩數連用表不定數), 부정수의 나머지 형식(不定數的羨余形式)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이 항목들은 부정수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 항목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 설명되었는데 그 중 ‘수사만 사용하여 표시하는 부정수’가 특징적이었다. 특정 숫자를 특별한 형식 없이 제시하여 불분명한 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도 관용적으로 활용되는 ‘백관(百官)’, ‘천리(千里)’ 등의 표현을 예로 들었다.

茹益益(2011)은 송나라 문헌에서의 수량 표현에 대해 분석하며 개수(概數)를 두 수 연속 사용(二數連用), 보조사를 옆에 써 함께 사용(與概數輔助詞連用), 특수 개수 보조사 ‘수’, ‘허’, ‘여’ 사용(特殊概數輔助詞“數”、“許”、“余”)으로 나누었고, 각 단어가 문헌에서 사용된 빈도를 모두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부정수 표현을 최대한 모아 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다. 부정수 표현에 대한 정의는 확고히 정해진 바가 없어 연구 범위를 정교히 정하는 것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2.1.에서 수량 표현의 체계를 살펴 수량 표현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2.2.에서 부정수와 관련된 여러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며 ‘부정수 표현’이라는 용어를 확고히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부정수 표현’의 범위를 세밀히 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량사 혹은 수량사구에 해당하는 표현만 다루기로 하였다. 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데 언어 사용자 간의 배경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표현은 어떤 문장에 사용하든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 표현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수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만을 연구 범위로 정하되, 그 짐작의 기준은 수직선상에 그 위치를 표시할 단서가 있는 불특정 수 표현으로 하였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부정수 표현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분류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 각 표현의 모든 조합을 다루는 것은 유형 분류나 특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수량사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2.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선행학들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사, 수 관형사, 명사, 분류사 등의 요소들 중 해당 표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각 유형별 표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표현에서만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 구분, 분류사의 적용 문제 등도 해당 표현이 다른 표현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만 세밀히 살피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ㄱ.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다.

ㄴ. 이 사과는 값이 얼마요?

ㄷ. 앞길이 구만리(九萬里) 같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ㄹ. 사람 두셋 / 사람 두세 명 / 두세 사람 / 두세 명의 사람

첫째는 (1ㄱ)과 같이 그 수를 파악할 단서가 문맥 외에는 없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만 이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수량을 가늠해볼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수’보다는 ‘주관량’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ㄴ)은 ‘잘 모르는 수효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객관적 수량을 나타낼 수 없고, 배경지식에 의존하지 않고는 수직선상에 가격의 범위를 나타낼 수 없다. (1ㄷ)은 과장된 표현으로써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관용적으로 사용되며, 이때의 기댓값은 90000이라는 수와 실질적으로는 연관이 없으므로 객관적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정수 표현을 다루는 본고의 취지와는 맞지 않았다. (1ㄹ)은 3.2.1.과 4.2.1.에서 다룰 부정수 표현이지만 해당 표현에 속하는 수량사구 구성 조합에 대해 모든 유형에서 다루는 것은 연구의 방향을 어지럽히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범위 기준에 적합한 부정수 표현을 일상에서 최대한 수집한 후 표준국어대사전(2023)을 통해 유의어, 반의어 등을 조사하였고, 선행 연구를 두루 살피며 부정수 표현의 목록을 보완하였다. 수집한 부정수 표현을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부정수 표현을 분류하였다. 구성 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내용을 3장에, 의미 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내용을 4장에 각각 기록하였다. 구성 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때는 먼저 부정수 표현의 구조를 살펴 한 단어로 된 것,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것,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후 부정수 표현 중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폈다. 의미 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때는 기준점의 특징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눈 후 사용된 어휘의 종류나 의미의 포괄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부정수 표현을 유형별로 분류하며 각 부정수 표현의 정의 및 용법을 살폈고, 이후 부정수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수 표현에 대해 서술할 때 다양한 예문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예문은 최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뽑았으나 사전에서 적절한 예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년 이전의 신문 기사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의미 범위를 수직선상에 나타내고, 참값이 존재할 확률을 각 부분의 농담(濃淡)을 이용해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정수 표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고자 하였다.



2. 수량 표현과 부정수 표현

2.1. 수량 표현의 구성

2.1.1. 수량사의 개념

수 표현에 쓰는 어휘는 수사와 수 관형사를 중심으로 한다. 수사는 명사, 대명사와 함께 체언에 속하고 수 관형사는 관형사의 일종으로 수식언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어휘들의 각 의미를 따져보면 서로 다른 품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대부분의 단어는 어형까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본관(2001: 267)에서 나타나듯 수사와 수 관형사의 범주에 대한 혼란은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별에 있어 어휘 분류에 혼란을 겪게 한다. 본 연구는 부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수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를 분류할 때 형태론적인 분류로 나누기보다는 의미론적인 분류로 나누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불확정한 수량을 나타내는 수 표현을 다루고 있으므로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만을 따로 골라 하나의 범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범주로 ‘수량사’가 있다. ‘수량사’의 정의는 현재 국어사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 표현에 대한 연구, 특히 수량사구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수량사의 개념은 자주 나타난다. 많은 연구자들이 수량사를 연구의 기본 요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량사의 개념과 범위가 정식으로 설정된 바가 없어 혼란이 있다.

신호철&이현희(2009)는 수량사를 어떤 대상의 수나 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량사와 수량사구에 대한 연구로 이익섭(1973), 김영희(1976), 김광희(1997)에서 쓰인 수량사의 개념과 범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은



수량사를 각각 조금씩 다르게 파악하고 있지만 모두 수량을 표현하는 수 어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수량사 개념은 김영근(1993), 유경화(2012) 등의 연구와 한국어와 외국어의 수량 표현 방법을 비교하는 논문들에서 언급되는 수량사와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량사’라는 용어로 부르하고자 한다.

2.1.2. 분류사의 개념 및 기능

분류사(classifier)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발달한 품사의 일종으로 국어의 수량사구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분류사의 성질에 대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분류사의 의미가 사전에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채완(1990: 169)은 분류사의 기능을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명사의 셈에 관여해서 그 명사를 셀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명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남순(1995: 44)은 분류사를 ‘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셈의 대상을 단위로 수량화하는 기능을 지닌 요소’라고 했다. 여러 분류사 연구에서 두 연구에서 설명된 분류사의 정의를 인용했거나 분류사를 두 연구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분류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류사의 기능과 성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형식(2002: 107-108)에 따르면 수 분류사는 수량사와 함께 양화 구성을 이루어 명사 지시물의 수량을 한정하는 단위 표시 기능인 수량화(quantification) 기능과 명사의 의미적인 부류를 한정하는 부류화(classification) 기능을 공유한다. 수 분류사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기능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알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수량단위 의존명사라고도 불리므로 수량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류화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으며, 분류사에는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분류사 어휘를 살펴보면 그 언어 화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범주와 문화적 특성을 살



필 수 있다.

분류사가 수량사구에 포함될 경우 분류사는 수량사와 명사의 어순과는 관계없이 수량사의 뒤에 첨가된다. 분류사는 명사와 수량사의 배치 순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선행할 경우에는 분류사가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량사가 선행할 경우에는 분류사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셀 수 없는 명사가 포함된 수량사구의 경우 분류사를 통해 명사를 수량화하므로 분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화자와 청자가 어떠한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면 분류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유동준(1983: 89)에서는 이에 대해 현상에 대해 ‘커피’라는 명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커피 하나’가 다방에서는 ‘커피 한 잔’으로 생각될 것이고, 일반 식품 가게에서는 ‘커피 한 병’, ‘커피 한 통’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용 상황에 대한 지식이 전제된다면 분류사가 생략되어도 지시 대상의 속성과 양을 알 수 있게 된다.

수량사-명사 어순의 수량사구에 분류사가 포함될 경우 분류사와 명사의 연결 부위에 관형격 조사 ‘의’가 나타난다. 명사-수량사 어순에서와 달리 수량사-명사 어순에서 관형격 조사가 등장하는 것은 두 수량사구가 같은 뜻을 나타내더라도 수량사-명사 어순만 관형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신호철&이현희(2009: 216)에 따르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관형격 조사 ‘의’는 수량사와 분류사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수량사-분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다.

분류사는 대체로 고유어 분류사와 한자어 분류사로 나눌 수 있는데 고유어 수량사에는 고유어 분류사를, 한자어 수량사에는 한자어 분류사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자어 수량사와 고유어 분류사의 조합은 어색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20 이상이면서 1의 자리가 0인 한자어 수량사는 고유어 분류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어 수량사와 한자어 분류사의 조합은 전자에 비해 제약이 적다. 채완(1983: 23)에 따르면 10 미만의 수라면 오히려 고유어 수량사가 선호되기도 하며 고유어 수량사를 사용할 경우 수량사구의 의미가 달라지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3)에서 볼 수 있듯 몇몇 분류사의 앞에 오는 10 미만의 한자어 수량사는 서수로 기능하고 고유어 수량사는 기수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차용된 서구어 분류사들(미터, 그램, 리터 등)은 한자어 수량사와만 결합한다.

(2) ㄱ. 오 조 조원 남으시오. / *다섯 조 조원 남으시오.

ㄴ. 다섯 조로 나누자. / *오 조로 나누자.

홍사만(2008: 7-9)에서는 분류사와 수량사의 결합에서 어원이 같은 계열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우형식(2003: 224)에서는 수량사구의 구성 방식이 일본어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홍사만(2008: 3-4)에 따르면 국어 분류사는 고유어계가 상당수를 이루며 전체 수효도 일본어 분류사의 2배 이상으로 400여 개나 된다. 이는 한국어 분류사가 오랜 기간 동안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분류사를 다른 문법 요소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선효(2005: 109-112)에서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며 자립 명사로도, 분류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예로 들며 품사 통용 현상을 수용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선효(2005: 120)는 분류사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자립명사 중 독립된 의미나 기능이 소멸되어 의존적 기능을 하게 되어 분류사가 된 단어가 있으며 현재 자립명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도 추후 분류사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류사는 수량사구의 요소 중 이론 정립이 어려운 영역이다. 분류사에 속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으며 명사를 분류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분류사가 어원이 같은 계열과 반드시 어울리거나 반드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조합이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것은 국어를 모국어로 두는 국어 연구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정수 표현은 수사나 수 관형사가 아닌 품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1.3. 수량사구의 구성 유형

수량사는 단독으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장 내에서는 분류사, 명사 등과 결합하여 수량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더 많다. 채완(1982)은 수량사구를 이루는 명사와 수량사의 어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한 쪽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의미기능이나 수의 분포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언어도 있는데, 국어에서는 수량사구가 명사-수량사 어순과 수량사-명사 어순 양쪽 모두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며 문장 내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채완(1982)에서는 수량사구가 수량사, 분류사, 명사로 구성되는데 때로는 분류사 없이 수량사 명사로만 구성되기도 하므로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사가 수량사와 분류사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고, 국어에서는 분류사가 수량사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로 가능한 것은 4가지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4가지를 (2)와 같이 제시하고 각각을 (A), (B), (C), (D)형 수량사구로 명명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3) ㄱ. 명사-수량사; 사람 둘

ㄴ. 명사-(수량사-분류사); 사람 두 명

ㄷ. 수량사-명사; 두 사람

ㄹ. (수량사-분류사)-명사; 두 명(의) 사람

최근에는 신호철&이현희(2009)에서 수량사구의 유형 분류 문제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분류사의 출현은 결국 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분류사의 출현 여부보다는 명사와 수량사의 위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어의 수량 구성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 (4) ㄱ. 명사 + 수량사 + (분류사) - 명수사(名數詞) 구성
 ㄴ.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 - 수명사(數名詞) 구성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든 그 의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호철&이현희(2009: 219-223)에서 설명했듯이 구성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먼저 명사-수량사 구성은 관형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 수량사-명사 구성은 관형관계를 이루어 수량사가 명사를 수식 한정한다. 따라서 명사-수량사 순서로 구성된 수량사구는 복합구조를 이루고 수량사-명사 순서로 구성된 수량사구는 관형구조를 이룬다. 두 구조 모두 후행 성분에 핵심 의미가 놓이게 되므로 수량사-명사 구성에서는 명사가, 명사-수량사 구성에서는 수량사가 핵심 성분, 즉 지시 대상이 된다. 또한 명사-수량사 구성은 격중출을 허용하지만 수량사-명사 구성은 격중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정수 표현에 사용되는 수량사구의 구조는 기존에 연구된 일반적 수량사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명사와 수량사 중 수량사에 가까이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2. 부정수 표현의 개념

본고에서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 중 정확하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 표현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명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다른 연구에서 이러한 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살펴본 후 가장 적절한 용어를 골라 주제어로 삼고자 하였다.

먼저 수사 이론 연구나 수사 어휘 연구를 살폈을 때 손용주(1994)는 ‘여남은’의 조어론적 형태와 의미특징을 다루며 ‘여남은’이 ‘부정수’의 일종이라고 했다. 구본관(2001)은 수사와 수 관형사의 합성 부분을 설명하며 합성 수사 항목에서 ‘한둘, 두



셋'과 같은 합성 수사를 '부정수'로 언급했고 논문의 핵심 키워드를 '부정수사(不定數詞)'로 설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인균(2008)이 수사의 하위 범주를 설정할 때 '부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1.2.3.에서 언급한 중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수의 불명확한 표현을 '부정수(不定數)', '개수(概數)', '개략수(概略數)'라는 용어 아래 설명하고 있어 참고가 되었다.

다만 '어림수'나 '합성수사', '복합수사'와 같은 단어들이 다른 연구에 사용된 바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 불명확한 수를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개념은 '어림수'였다. 어림수는 '대강 짐작으로 잡은 수'로 정의되는데 수학교육 분야에서 이 키워드로 연구한 논문이 발견되었다. 이 때 어림수란 명확한 수를 두고 반올림 등의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큰 수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수사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작은 수들과 '몇', '여러' 등의 단어를 포괄하기 어렵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복합어 연구에서 '한둘, 두셋'과 같은 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단어들은 '합성수사' 혹은 '복합수사'로 분류되었는데 수사의 합성을 통해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표현한 논문에는 김성규(1984), 조용상(1997), 홍윤표(1994) 등이 있었다. 여기에 제시된 단어들 외에도 많은 부정확한 수들이 수사와 수사 간, 혹은 수사와 다른 품사 간의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수사 혹은 합성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연구들은 수사가 합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이한 의미에 집중한 것이고 본고에서는 부정확한 수 전반을 다루고자 하므로 주제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열하나, 십이, 삼십' 등과 같은 단어들도 수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합수사에 포함될 수 있어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다른 용어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주관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기동(1988) 이후 인지 문법을 국어에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선희(2003)에 따르면 주관량이란 언어의 주관성이 양범주에 반영되어 형성된 개념이다. 이는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양에 주관적인 느낌이



나 태도, 평가 등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해승(2014)은 주관적 언어 심리 행위라 언급하며 판단 및 평가를 위한 참조량의 종류를 사회적 정상량, 물리적 정상량, 개인적 정상량, 개인적 기대량, 객관적 실제량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주관량에 사용되는 한국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심리적으로 다르게 인지되는 수가 아니라 부정확한 수가 나타내는 객관적인 의미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다.

여러 선행의 연구를 참고한 끝에 본고에서는 부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수량사를 ‘부정수(不定數)’라고 설정하였다. ‘정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정수’의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정수를 ‘일정하게 정하여진 수효나 수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정수는 ‘일정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수효나 수량’을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부정수에 대한 연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관계에 의지해 개념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정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어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여러 단어를 포함한 구 형태를 이룬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부정수 표현’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2.3. 부정수 표현의 특성

부정수 표현은 일반적인 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부정수 표현이 대부분 수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에서 다룬 수사와 수 관형사의 품사 통용 문제, 수량사구의 구성 방식, 분류사의 기능과 특징 등에서 수량사와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수사는 체언으로서 자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수 관형사라면 분류사와 함께 사용되어 수량사구로서 자립할 수 있다. 또한 수량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수 표현도 관형어의 꾸밈을 명사처럼 자유롭게 받지 못하고 큰 제약을 받으며, 복수접미사 ‘-들, -네, -희’ 등에 의해 복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



다. 수사에 기수와 서수가 있듯 부정수 표현도 서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수량 표현에서 그러하듯 부정수 표현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량의 대상이 표현 내에 명사로 존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소통 상황 안에 그 대상이 암묵적으로 상정되어 있다.

국어의 부정수 표현은 두루 사용된다. 3장과 4장에서 다루게 될 단어들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새로 생성되는 단어도 드물고 사라지는 단어도 드물어 언어의 역사성 측면에서 다른 단어에 비해 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고유어 부정수 표현은 주로 일상에서 사용되고, 한자어 부정수 표현은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한자어 부정수 표현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을 것이나 고유어 부정수 표현은 중국어와 호환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자생적으로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정수 표현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의 품사로는 수사, 관형사, 명사, 부사, 동사 등이 있다. ‘서넛, 여남은, 셋쯤’과 같이 한 어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코알라 5만 마리 중 다수, 천이 될까 말까 하다’와 같이 여러 어절로 이루어져 구를 이룰 수도 있다. 2.1.2.에서 살펴보았듯 수량사구는 그 내부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어절로 이루어진 부정수 표현의 경우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수량사 및 수량사구를 기준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속격 조사 ‘의’나 의존 명사 ‘중’ 등의 단어가 사이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선행/후행 관계는 변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여러 부정수 표현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넛 이상, 적어도 사백 넘게’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부정수 표현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3. 구성 방식에 따른 부정수 표현 유형

3.1.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수 표현은 2.1.2.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부정수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수 관형사,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분류사 이외에도 부정(不定)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므로 더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먼저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부정수 표현과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부정수 표현으로 나누되 부정 표현이 수사나 수 관형사보다 선행하는 것과 후행하는 것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3.2.의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과 3.3.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 3.4.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 3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후 해당 표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어떤 품사가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 하였다.

3.2.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의 경우 3.2.1. 수사 및 수 관형사로만 구성된 유형과 3.2.2. 다른 품사와 함께 단어를 이루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2.1.의 유형은 복합수사 및 복합관형사로 연구되었던 바가 있어 선행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고유어와 한자어 표현이 모두 존재하여 분류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한편 3.2.2.에 포함되는 유형의 부정수 표현은 수사나 수 관형사와 다른 품사가 결합하여 이룬 복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생어와 합성어를 포괄한다.

3.3.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부정수 표현 내부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수사나 수 관형사보다 앞쪽에 존재하는 표현이다. 이 유형의 표현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다른 품사의 단어가 수사 혹은 수 관형



사와 분류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의 품사 종류에 따라 3.3.1. 관형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3.3.2. 명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3.3.3. 부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3.4.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부정수 표현 내부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수사나 수 관형사보다 뒤쪽에 존재하는 표현이다. 이 유형의 표현에는 3.4.1.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긴 유형, 3.4.2. 부정의 의미가 명사구에 담긴 유형, 3.4.3. 부정의 의미가 동사에 담긴 유형이 있다. 3.4.1.과 3.4.2.는 모두 수사 및 수 관형사 뒤에 오는 명사가 수량 표현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3.4.1.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4.2.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야 기능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3.2.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

3.2.1. 수사 및 수 관형사로만 구성된 유형

인접한 수량사 간의 합성을 통해 부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일상 대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합성할 때는 항상 작은 수를 앞에, 큰 수를 뒤에 위치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한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중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문법 개론서에서도 그 쓰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지식인만 한자를 익혔던 15세기에도 고유어로 된 표현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유형의 표현이 한자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5) ㄱ. 한둘, 두셋/두엇, 서넛, 너넛/너더넛/네넛/네다섯, 대여섯, 예닐곱, 일



여덟, 열아홉/여덟아홉

ㄴ. 한두, 두세/두어, 서너, 너댓/너더댓/네댓/네다섯, 대여섯, 예닐곱, 일
여덟, 열아홉/여덟아홉

ㄷ. 두서넛, 댓

ㄹ. *아홉열, *열열하나

부정수를 포함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5ㄱ)과 (5ㄴ)을 수사와 수 관형사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서로 완벽하게 대응되며 같은 의미를 갖는다. 문장 내 기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5ㄱ)과 (5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가진 활용형으로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두 수량사를 합쳐 부정수 표현을 구성하는데 예외적으로 (5ㄷ)의 ‘두서넛’만 세 수량사의 합성으로 부정수 표현을 이루고 있으며, 다섯쯤 되는 수를 나타내는 ‘댓’은 단독으로 부정수를 표현한다. 인접한 두 수라면 합성을 통해 부정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5ㄹ)과 같이 둘 중 하나라도 0으로 끝나는 수가 오도록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ㄱ. 열서넛, 서른대여섯, 삼백두셋

ㄴ. *스무서른

고유어 수량사를 합성한 부정수 표현은 주로 한 자리 수를 나타낼 때 사용되지만 그보다 큰 부정수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정의 범위는 (6ㄱ)과 같이 항상 한 자리 내에 있다. 현대국어에서 세 자리 이상의 큰 수를 나타내는 고유어 수량사는 사용되지 않고, 십의 자리를 나타내는 고유어 수량사를 합성하여 부정수를 만드는 것은 (6ㄴ)에서와 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 이상의 큰 단위를 나타내는 고유어 부정수는 한자어 수량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7) ㄱ. 일이, 이삼, 삼사, 사오, 오륙, 육칠, 칠팔, 팔구

ㄴ. 이삼십, 삼사백, 사오천

ㄷ. *이십구삼십, *십십일

ㄹ. 구시월에 남도의 가을은 축제로 물든다.

고유어 수량사뿐 아니라 한자어 수량사도 인접한 두 수량사를 합성하여 부정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고유어 수량사가 합성된 부정수와는 달리 작은 수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큰 수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한 자리 수로 이루어진 (7ㄱ)의 부정수들은 ‘십중팔구(十中八九)’ 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몇몇 한자성어가 아니고서는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 한자어, 외래어 분류사 등과 함께 수량사구를 이룰 때만 사용된다. 그러나 (7ㄴ)과 같이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에서는 한자어 수량사의 제약이 사라져, 보다 많은 분류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단위가 같으면 합성할 수 있다. (7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유어 수량사에서와 마찬가지로 9로 끝나는 수와 그 다음 수 사이의 합성, 0으로 끝나는 수와 그 다음 수 사이의 합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7ㄹ)의 ‘구시월(九十月)’이 표제어에 올라 있다.

수사 ‘몇’은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과 ‘잘 모르는 수를 물을 때 쓰는 말’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을 나타내며 붙여 쓴다. 후자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수사와 별개의 단어로 보아 띄어 쓰는데, 이때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수(數)’는 수사가 아니라 활용 양상에 따라 명사, 관형사, 접사로 분류되고, ‘기(幾)-’는 접두사에 해당하여 3.2.2.에서 다루어야 하나 ‘몇’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었다.



(8) ㄱ. 몇 권의 책. / 수 권의 책.

ㄴ. 몇 미터의 깊이. / 수 미터의 깊이.

ㄷ. 아이들 몇이 더 왔다. / *아이들 수가 더 왔다.

ㄹ. *몇몇 권의 책. / *몇몇 미터의 깊이. / 아이들 몇몇이 더 왔다.

두 단어는 관형어로서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몇’은 (8ㄷ)과 같이 분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특정 한 자리 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는 분류사 없이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명사로서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이라는 뜻이 더 우선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몇몇’은 ‘몇’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는데, (8ㄹ)에서 볼 수 있듯 분류사와 함께 사용하기가 어렵다.

(9) ㄱ. 몇 분(分)이 지나 / 수 분이 지나 / 오 분이 지나 / *다섯 분이 지나

ㄴ. 신발 몇 켤레 / 신발 수 켤레 / *신발 오 켤레 / 신발 다섯 켤레

ㄷ. 몇 킬로미터 / 수 킬로미터 / 오 킬로미터 / *다섯 킬로미터

‘몇’과 ‘수’는 활용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부정수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내는 의미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부정수 표현에 있어서는 ‘몇’의 한자어 표현이 ‘수’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 한자어 분류사, 고유어 분류사를 조합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 관형사의 경우 채완(1983:22~24)에서 연구되었듯 고유어 수 관형사와 고유어 분류사의 조합에서만 모든 조합이 가능하고, 고유어 수 관형사-한자어 분류사, 한자어 수 관형사-한자어 분류사, 한자어 수 관형사-고유어 분류사 조합에서는 자연스럽게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서구어 분류사는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하며 10 미만의 수라도 고



유어 수사와는 결합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9)에서 보듯 ‘몇’이나 ‘수’의 경우 일반적인 수 관형사에 비해 결합의 범위가 넓다. 다만 ‘수’의 경우 ‘수년(數年)’, ‘수개월(數個月)’, ‘수차례(數次例)’ 같이 일상에서 흔히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를 형성하는, 활용도가 높은 접두사이고, ‘몇’의 경우에는 의문문에 쓰일 때 별다른 제약이 없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수 관형사보다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10) ㄱ. 몇십 / 몇백 / 몇천 / 몇만 / 몇억 / 몇조

ㄴ. 수십 / 수백 / 수천 / 수만 / 수억 / 수조

ㄷ. 기십 / 기백 / 기천 / 기만

(10ㄱ)과 (10ㄴ)은 서로 같은 범위의 부정수를 나타낸다. 20~99, 200~999, 2000~9999 등과 같이 해당 자릿수의 수 중 가장 작은 숫자의 2배 이상, 하나 큰 자릿수의 수 중 가장 작은 숫자 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10ㄱ)과 (10ㄴ) 중 어떤 분류사와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존재하지만,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 관형사에 비해 제약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100 이상을 나타내는 고유어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9)에서는 결합이 어색했던 분류사도 (10)에서는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0ㄷ)의 접두사 ‘기-’는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여럿’ 또는 ‘몇’의 뜻을 더하는 말로 (10ㄱ), (10ㄴ)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다. 문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몇몇 단어는 동음이의어가 있어 일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10ㄱ)이나 (10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보다 큰 단위에서 1~3 자릿수를 늘려 ‘기십만’, ‘기백만’, ‘기천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억’, ‘조’와는 결합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도 일본어에서는 ‘幾億’, ‘幾兆’이 사용되고 있고, 중국어에서도 ‘几亿’, ‘几兆’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징적인 현상이다.



- (11) ㄱ. 십수 명 / 백수십 명 / 천수백 명 / 만 수천 명
 ㄴ. 열몇 명 / 백몇십 명 / 천몇백 명 / 만 몇천 명
 ㄷ. [?]백수 명 / 백몇 명
 ㄹ. [?]이십수 명 / 이백수십 명 / 이천수백 명 / 이만 수천 명
 ㅁ. 스물몇 명 / 이백몇십 명 / 이천몇백 명 / 이만 몇천 명

(11)에서 언급한 부정수 표현 중에는 ‘십수’만 사전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수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를 표제어로 등록할 이유가 없고, 숫자가 커질수록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몇’이나 ‘백수십’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수 표현은 예문으로나마 언급되고 있다. (11)에 사용된 표현은 화자마다 어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분류사가 붙어 있어야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화자가 많아 10 이상의 수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수 모두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사인 ‘명’을 붙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11ㄱ)과 (11ㄴ)은 모두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참값에 가까운 수와 그 바로 아래 단위의 부정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2ㄴ)의 ‘몇’의 경우 고유어 수사인 ‘열’과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나 ‘십몇’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자리 이상의 수는 고유어 수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백’, ‘천’, ‘만’ 등의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한다. (11ㄷ)도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조합이다. 앞에 결합된 수를 조금 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수’의 경우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인지 해당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기 어려웠다.

(11ㄹ)과 (11ㅁ)은 참값이 1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11ㄱ), (11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는 않으나 사용 가능한 부정수 표현이다. 또한 (11ㅁ)의 ‘스물몇’은 ‘이십몇’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값이 1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큰 제약 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2.2. 다른 품사와 함께 단어를 이루는 유형

이 유형에서는 서로 다른 품사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된 부정수를 다루고자 한다. 이 유형은 합성어이든 파생어이든 어근 하나는 수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유형에는 ‘수(數)’, ‘기(幾)-’와 합쳐져 복합어를 이루는 부정수 표현이 포함되지만 앞서 3.2.1.에서 ‘몇’과 비교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여남은’은 열이 조금 넘는 수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수사로 분류되며 분류사 앞에서는 관형사로 작용하여 일반적인 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사용된다. 손용주(1994)에 따르면 수사 ‘열’과 ‘남다’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것으로 형태론적으로는 합성어, 의미론적으로는 파생어에 해당한다. 한편 ‘남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 ‘여(餘)’도 ‘남은’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여’는 사전에서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분류되며 수량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12) ㄱ. 스무남은 / *서르남은 / 예수남은 / *백남은

ㄴ. 이십여 / 삼십여 / 육십여 / 백여

ㄷ. *10남은 / *20남은

ㄹ. 10여 / 20여 / 300여 / 1500여

숫자 10 이외의 수와 결합하는 경우에 있어 ‘남은’과 ‘-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은’은 (12ㄱ)과 같이 10, 20, 60과만 합성어를 이룰 수 있다. 더욱이 일상에서는 10과의 결합인 ‘여남은’만 사용되고 있어 비생산적이나 ‘-여’는 (12ㄴ)과 같이 10 이상의 숫자와는 제한 없이 결합할 수 있어 매우 생산적이다. 또한 (12ㄷ)에서 보듯 ‘남은’은 아라비아 숫자로 된 수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데 반해 ‘-여’는 (12ㄹ)에서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 ㄱ. 여남은 그루 / 여남은 개(個) / ?여남은 센티미터

ㄴ. 십여 그루 / 십여 개(個) / 십여 센티미터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은 일반적인 수사에 비해 다양한 분류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13)에서도 고유어 분류사, 한자어 분류사를 가리지 않고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만 ‘여남은’의 경우 외래어 분류사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기도 한다.

‘-대(臺)’는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정의된다. 한 자리 수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두 자리 이상의 수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14) ㄱ. 주행 거리 3만대의 중고차

ㄴ. 십 대 소녀 / 70대 노인

(14ㄱ)에서 보듯 단위가 명확한 경우 분류사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대’는 접미사에 해당하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14ㄴ)의 ‘대’는 함께 언급된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보이지만 실상 다른 단어로 의존 명사 ‘대(代)’에 해당한다. 사람의 나이를 십 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로 접사가 아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 외에 접미사 ‘-가량’과 접미사 ‘-쯤’도 부정수 표현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가량(假量)’은 한자어이지만 국어에서만 수량사 뒤에 붙어 부정수 표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가량’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는 명사로 제시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2023)에서는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4.4.1.에서 의미 범위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

3.3.1. 관형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관형사는 체언 앞에 쓰여 그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조사가 붙지 않고 어미 활용을 하지 않는 확고한 불변화어이다. 관형사와 체언 사이에는 다른 말이 끼어 들 수 있으나 부정수 표현에서는 관형사와 체언 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 넣으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15) ㄱ. 오늘 낮 평균 기온은 약 3도로 예상된다.

ㄴ. 근 닷새 계속 내린 축축한 단비를 맞고.

ㄷ. 날씨가 좋아서 한 20분 걸었다.

(15ㄱ)의 ‘약(約)’은 어떤 수량에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5ㄴ)의 ‘근(近)’, (15ㄷ)의 ‘한’은 모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만 ‘약’, ‘근’ 등은 공식적인 문서나 정보 전달을 위한 글에서 주로 사용되고, ‘한’ 등은 일상적인 대화나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한다. 격식을 지켜야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을 사용할 경우 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3.3.2. 명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이 유형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관형어로서 수량사나 수량사구를 수식한다.



(16) ㄱ. 그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20년 징역을 선고받는다.

ㄴ. 나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인 미니멈 700점은 넘겼다.

가장 작음을 나타내는 명사 ‘최소(最小)’는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인다. (16ㄱ)과 같이 수량사구 앞에 위치하여 수량사구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2023)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는 ‘미니멈(minimum)’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영영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명사, 형용사²⁾, 부사로 다루고 있으나 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만 분류하고 있어 (16ㄴ)과 같은 형태로 사용한다. 이 또한 의미나 문장 내 역할 면에서는 ‘최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외에도 ‘최소(最少)’, ‘최저(最低)’, ‘최하(最下)’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최소(最小)’에 비해 활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최대’의 사전적 정의는 ‘수나 양, 정도 따위가 가장 큼.’이나 부정수 표현에서의 의미는 ‘최대한’의 사전적 정의인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수와도 결합할 수 있어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의 자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17) ㄱ. 그 기능은 최대 2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ㄴ. 최고 5년에서 최하 2년 / *최상 5년에서 최하 2년

‘최소’와 ‘최대’가 반의어 관계에 있듯 ‘최하’의 반의어는 ‘최상’에 해당한다. 수와 결합하지 않는 문장에서는 ‘최고’와 ‘최저’, ‘최상’과 ‘최하’가 반의 관계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그러나 부정수 표현에서는 (17ㄴ)에서 보듯 ‘최상’이 사용되지

2) 이때의 형용사는 영어 문법에서의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않기 때문에 ‘최저’의 반의어뿐 아니라 ‘최하’의 반의어로도 ‘최고’가 사용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맥시멈(maximum)’도 ‘미니멈’과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2023)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 표제어로 올라 있으며 그 의미가 ‘수량이나 정도가 최대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3.3.3. 부사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유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수 표현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가 관형어로 기능하며 수량사나 수량사구를 수식한다.

(18) ㄱ. 보라색 가지가 대충 열 개는 넘어 보였다.

ㄴ. 오늘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대략 1천 명으로 추산된다.

ㄷ. 헤아려 보니 모인 사람이 얼추 500명은 되겠다.

ㄹ. 한반도의 거의 70%가 험한 산악으로 점유되어 있소.

(18ㄱ)의 ‘대충’은 한자어 ‘대총(大總)’에서 기원한 말로 ‘대강(大綱)’, ‘대략(大略)’, ‘대체로(大體-로)’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 한자어에서 ‘대(大)’는 ‘자세하지 않게, 개략적으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대충’보다 (18ㄴ)의 ‘대략’을 많이 사용한다. (18ㄷ)의 ‘얼추’는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과 ‘어떤 기준에 거의 가깝게.’ 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18ㄹ)의 ‘거의’는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되는데, 부정수 표현에서는 부사의 의미만 사용한다.



3.4.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

3.4.1.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긴 유형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긴 유형은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범위의 부정수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9ㄱ)~(19ㄷ)에 해당하는 부정수 표현에 대해서는 근대 교육이 정립되며 기준점의 포함 여부를 학교 교육을 통해 모두 보편적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한다.

(19) ㄱ. 꼭짓점이 셋 이상인 도형에는 삼각형도 포함된다.

ㄴ. 시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ㄷ. 하루 엮본 섭취량을 10그램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ㄹ. 그는 30세 전후로 보인다.

ㅁ. 그는 늘 밤 12시 언저리에 귀가했다.

ㅂ. 20리 정도의 거리.

ㅅ. 그들은 삼십 분 남짓 걸어 숲가마에 도착했다.

ㅇ. 문단 출입을 비롯한 것은 스무 살 무렵이었다.

(19ㄱ)의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으로 정의되어 있다.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람.’으로 정의되는 ‘이하(以下)’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이때 ‘이상’과 ‘이하’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19ㄴ)의 ‘이내(以內)’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으로 정의되며, ‘내(內)’, ‘안’과 호환이 가능하다. (19ㄷ)의 ‘미만(未滿)’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으로 정의되어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으로 정의되는 ‘초과(超過)’와 반의 관계를 이루며, 이때 그 수량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ㄹ)



의 ‘전후(前後)’는 수량에 약간 모자라거나 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외(内外)’, ‘안팎’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19ㄱ)~(19ㄴ)은 중국어 부정수 표현, 일본어 부정수 표현과도 거의 일치한다. 다만 중국어의 경우 ‘전후’, ‘내외’보다는 ‘좌우(左右)’, ‘상하(上下)’를 많이 사용한다.

(19ㄹ)~(19ㅇ)은 국어 부정수 표현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19ㄹ)의 ‘언저리’는 부정수 표현에서 ‘어떤 나이나 시간의 전후.’, ‘어떤 수준이나 정도의 위아래.’의 의미로 사용된다. (19ㄴ)의 ‘정도(程度)’는 ‘그만큼가량의 분량.’을 의미하며 일본어와 중국어 모두에 있는 단어이지만 수량사 뒤에 바로 붙어 부정수를 나타내는 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9ㅅ)~(19ㅇ)은 고유어 의존명사로 되어 있다. (19ㅅ)의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19ㅇ)의 ‘무렵’은 ‘어떤 때의 그 즈음.’으로 정의되고, 의존 명사 ‘즈음’은 ‘일이 어찌 될 무렵’으로 정의되어 서로 혼용하여 쓸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즘’은 ‘즈음’의 준말이다.

3.4.2. 부정의 의미가 명사구에 담긴 유형

3.4.1.과 3.4.2.를 구분한 것은 두 유형 모두 부정의 의미가 명사에 담겨 있지만 수량사나 수량사구와 해당 명사만으로는 부정수 표현이 완성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속격 조사 ‘의’나 의존명사 ‘중’, 혹은 둘을 합친 ‘중의’, ‘가운데’ 등을 사용하여 부정수 표현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수 표현들을 모아 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 ㄱ. 20여 개 노점 중 대부분이 간이 걸개와 보조 의자, 탁자를 내놓았다.

ㄴ. 전체 응답자 502명의 반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ㄷ. 검찰은 올림픽 수익금 300여만 달러 중 일부의 행방을 추궁했다.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은 총량에 비해 어떠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총량에 못 미치는 수를 다루고 있다. (20ㄱ)은 전체 중 ‘대부분(大部分)’에 해당하므로 총량과 가까운 수를 기댓값으로 갖는다. ‘대다수(大多數)’도 마찬가지이다. 반을 넘겼다는 뜻의 ‘과반수(過半數)’, 많은 쪽이라는 뜻의 ‘다수(多數)’ 등도 총량만큼은 아니지만 절반보다는 많은 양을 나타낸다. (20ㄴ)은 ‘반수(半數)’라 하였으므로 총량의 절반 전후의 양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과수(過數)’, ‘다수(多數)’ 등도 비슷한 기댓값을 갖는다. (20ㄷ)은 ‘일부(一部)’라고만 하였으므로 그 양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총량보다는 무조건 작은 수를 표현하고 있다. ‘상당수(相當數)’, ‘적당량(適當量)’ 등도 총량보다 작은 수를 기댓값을 갖는다는 정보만 주는데, 대화 참여자의 주관에 반영되므로 똑같은 문장이라도 참값이 서로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3.4.3. 부정의 의미가 동사에 담긴 유형

이 유형은 고유어 표현으로 되어 있어 국어 부정수 표현의 특별함을 잘 드러낸다. 부정 표현이 담긴 동사와 수량사를 모두 포함하므로 항상 여러 어절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21) ㄱ. 열 평이 채 못 되게 구획된 그 궁색스러운 아파트

ㄴ. 그는 사십이 다 되도록 빈둥거리며 노모에게 얹혀산다.

ㄷ. 장마가 끝난 뒤에는 섭씨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된다.

(21ㄱ)과 (21ㄴ)은 ‘되다’의 뜻 중 하나인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되다’가 부정수 표현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못’이나 ‘안’, ‘다’ 같은 부사와 함께 사용해 그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대부분 부정적(否定的) 의미가 포함되는데, (21ㄱ)과 (21ㄴ)도 그러하다. ‘되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될동말동하다’와 ‘될까 말까하다’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같은 의미 범위를 갖지만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21ㄷ)에는 동사 ‘웃돌다’가 사용되었다. ‘웃돌다’는 ‘어떤 정도를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상회하다’와 유의어이고, ‘밑돌다’의 반의어이다. 이러한 부정수 표현 앞에는 ‘조금’이나 ‘많이’와 같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정수 표현에서는 불가능한 형태여서 특징적이다.



4. 의미 범위에 따른 부정수 표현 유형

4.1.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본고에서는 부정수 표현을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4.2.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으로 기준점이 시작점과 끝점, 두 개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4.3.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으로 기준점이 한 개이며 시작점과 끝점 중 하나가 정해져 있다. 세 번째 유형은 4.4.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으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의미 범위가 존재하는 유형이다.

4.2.는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으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수는 표현할 수 있는 실제 값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특정되며, 이를 벗어난 수를 가리킬 경우 논리적으로 그른 표현이 된다. 또한 의미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특정 수가 참값일 확률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4.2.는 4.2.1. 참값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과 4.2.2. 참값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범위 내 참값의 확률이 고르게 분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4.3.에서 다루는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은 시작점과 끝점 중 하나만 특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점으로부터 적거나 많은 방향의 수를 나타낸다. 이를 수학 기호로 표현한다면 부등호를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측 분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의미 범위가 기준점의 좌측과 우측 중 한 방향으로만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사용되는 단어는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했으나 정확한 계량이 일반화된 현대에 이르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과 의미 범위는 다른 언어와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유형의 표현은 둘 중 한쪽 방향



으로 의미 범위가 발산해야 하지만 수량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수를 다루는 일이 적어 대부분의 예시가 0이나 1을 한계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3.은 범위와 기준점의 관계에 따라 4.3.1. 기준점을 포함하는 유형, 4.3.2.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유형, 4.3.3. 기준점에 수렴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4.4.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은 기준점을 하나 갖고 있으며 기준점의 양방향에 있는 수를 참값의 범위로 갖는다. 시작점과 끝점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수직선은 양끝으로 무한히 존재하고, 기준점에 가까운 수일수록 참값일 확률이 높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4.4.는 기준점의 제시 방법에 따라 4.4.1. 어림수를 제시하는 유형과 4.4.2. 교차점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4.2.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

이 장에서 다루는 부정수 표현은 해당 표현이 나타낼 수 있는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시작점과 끝점을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를 수직선에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는 해당 범위를 벗어난 수를 나타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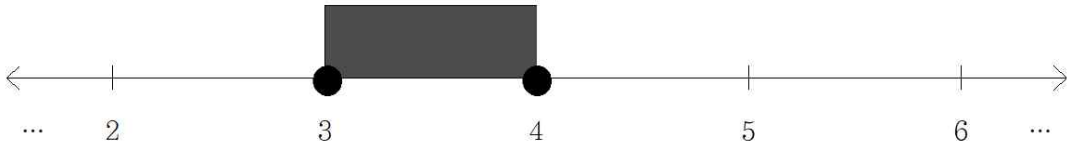
4.2.1. 참값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

이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수 표현으로 여러 중세국어 자료에도 나타나며 현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합 구조와 고유어/한자어 구분에 따른 제약 등은 3.2.1.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의미 범위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22) ㄱ.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서넛은 더 먹어 보인다.

ㄴ. 지프는 달리던 관성으로 삼사십 미터 나아가서 멎었다.



〈그림 1〉 ‘서넛’의 의미 범위

(22ㄱ)의 ‘서넛’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때 시작점인 3과 끝점인 4는 모두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이때 참값은 3 혹은 4로 그 확률은 각각 50%에 해당한다.



〈그림 2〉 ‘삼사십 미터’의 의미 범위

(22ㄴ)의 ‘삼사십 미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때 〈그림 2〉의 범위 안에는 11개의 자연수가 존재하지만 ‘삼사십 미터’의 참값이 30미터일 확률은 $1/11$ 이 아니다. ‘미터’는 셀 수 없는 것을 셀 수 있게 해주는 분류사이므로 30.5미터, 38.2948미터 등 30 이상 40 이하의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유리수가 모두 참값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ㄱ.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더 어찌라는 거야?

ㄷ. 저녁이 되자 거리에는 노점상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ㄹ. 신세 지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 하루 이틀 날짜는 지나가는데

‘한둘’의 본말은 ‘하나둘’로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지만 (8ㄱ)과 같이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부정어와 호응하며 너무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23)의 예 모두가 부정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법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23ㄴ)과 같이 분류사가 조합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23ㄷ)의 ‘하나둘’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낸다. (23ㄱ)과 같이 ‘한둘’로 줄여 쓸 수 있으며 (23ㄱ)에 사용된 용법과 그 형태가 완전히 같아 문법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23ㄴ)과 같이 분류사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도 인접한 수사 간 결합과 비슷한 형태로 합쳐져 정확하지 않은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루이틀’, ‘사나흘’, ‘대엿새’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5일을 뜻하는 ‘사나나달’도 있다. 이 중 ‘하루이틀’은 (23ㄹ)에서 보듯 (23ㄴ), (23ㄷ)과 같은 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하루이틀’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만 표제어로 실고, 표준국어대사전(2023)에서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 두 단어로 띄어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일양일(一兩日)’과 같은 단어도 있는데, 하루나 이틀, 오늘이나 내일을 뜻하는 말로 2를 주로 ‘양(兩)’으로 표현하는 중국어에서 온 말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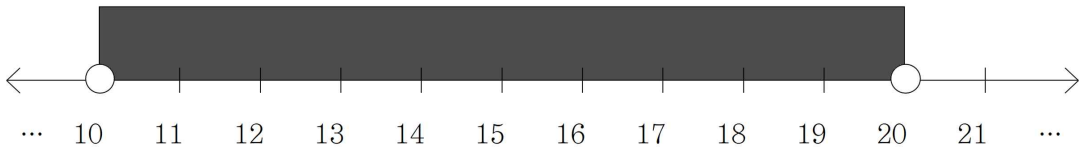
(24) ㄱ. 과자 몇 개만 집어 줘.

ㄴ. 이 음식점은 벌써 십수 년째 내가 단골로 다니는 집이다.

ㄷ.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수십 가지를 알고 있다.



〈그림 3〉 ‘몇 개’의 의미 범위



〈그림 4〉 ‘십수 년째’의 의미 범위



〈그림 5〉 ‘수십 가지’의 의미 범위



‘수’와 ‘몇’이 복합어를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그림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한 자리의 수를 표현한다. 여럿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4ㄱ)과 같이 가산명사와 사용되어 자연수만 표현할 때는 2~9의 수량을 나타내겠지만 (24ㄴ)과 같이 도량분류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해야될 수 있게 되는 불가산명사와 호환될 경우에는 1 초과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수든 나타낼 수 있어 <그림 3>과 같이 표현하였다.

(24ㄴ)의 ‘십수’ 혹은 ‘열 몇’은 같은 의미이다. ‘십수’는 사전에 ‘열에 얼마를 더한 수. 열하나부터 열아홉까지를 두루 의미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하지 않고 말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ㄷ)의 ‘수십’은 ‘십의 여러 배가 되는 수.’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20을 포함하며 100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표현하였다. 사전적 의미로는 20, 30, 40 등과 같이 십의 배수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확한 수를 가리키는 부정수 표현의 특성상 십의 배수가 아니더라도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된 숫자라면 모두 참값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미사 ‘-대’를 활용한 표현도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6> ‘삼십만 원대’의 의미 범위

<그림 6>에서 보듯 이 표현에서는 언급된 숫자를 포함하여 그 다음 단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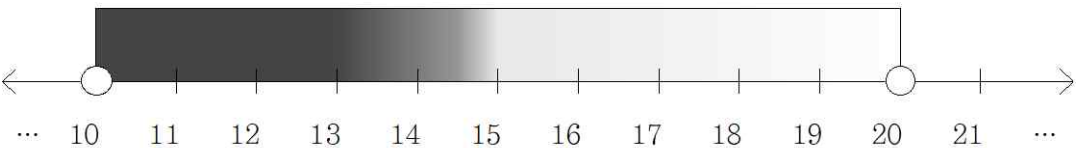
미만까지를 나타내게 된다. 언급한 수가 앞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 수가 뒤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앞 기준점은 참값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뒤 기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5) ㄱ. 이 가구는 삼십만 원대로 가격이 인하되었다.

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25ㄱ)의 ‘삼십만 원대’는 명확히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으로 의미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가장 큰 자릿수에 1이 올 때는 앞 기준점은 명확하나 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지, 100원 이상 200원 미만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25ㄴ)의 ‘억대 연봉’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지, 1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억대(億臺)’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억으로 헤아릴 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가장 큰 자릿수가 1일 때는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4.2.2. 참값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유형



〈그림 7〉 ‘여남은’, ‘십여’의 의미 범위



(26) ㄱ. 그 사람 여남은 평 되는 옥탑에서 살고 있더라.

ㄴ. 서커스 단원들이 십여 가지 재주를 보여 주었다.

(26)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정수 표현의 예이다. ‘여남은’과 ‘십여’는 모두 열이 조금 넘는 수를 가리킨다. 이때 ‘조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참값의 존재 범위가 달라진다. 자연수로 헤아릴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일반적인 화자는 11~13 개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절반보다 적다는 의미에서 15개 미만이라면 ‘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태소의 의미를 따져 보았을 때 10 다음 가는 수인 20보다 작다면 ‘조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7>은 10 초과 20 미만의 범위로 설정하되 15 이상 20 미만일 가능성은 매우 적고, 10 초과 13 이하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참값이 자연 수일 경우 11, 12, 13일 확률은 동일하지만 14~19의 범위에서는 수가 클수록 참 값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여남은’이나 ‘십여’는 일반적으로 13 이하의 수를 표현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13 초과 15 미만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15이상 20 미만의 수를 참값으로 갖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 표현으로 ‘남짓’이 있다.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를 이르는 말로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의존명사이다.

(27) ㄱ. 사람들이 열 명 남짓 모였다.

ㄴ. 열 그루 남짓 / 열 개(個) 남짓 / 십 센티미터 남짓

ㄷ. 셋 남짓 / ²삼 남짓 / 삼백 남짓



(27ㄱ)의 의미 범위는 <그림 7>과 일치한다. (27ㄴ)에서 보듯 고유어, 한자어 분류사를 가리지 않고 결합한다. (27ㄷ)에서 보듯 분류사 없이 활용할 때에는 주로 고유어 수량 표현과 결합하고, 100 이상의 수를 표현할 때만 한자어 수량 표현과 결합한다.

4.3.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

이 장에서 다루는 부정수 표현은 해당 표현이 나타낼 수 있는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시작점이나 끝점 중 하나를 특정할 수 있다. 기준점이 되는 수의 반대편으로는 무한대의 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참값일 확률은 줄어든다. 다만 수직선상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기댓값이 음의 정수로 무한히 뻗지 못하고 기댓값 중 가장 작은 수가 0이나 1로 고정될 수 있다.

4.3.1. 기준점을 포함하는 유형

‘이상(以上)’, ‘이하(以下)’, ‘이내(以內)’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에서 기준점의 포함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 중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왔으며 사전에서도 ‘이상’을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교육과정인 2022개정 교육과정에도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³⁾

3) [6수01-02] 실생활과 연결하여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의미와 쓰임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수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내’의 기준점 포함 여부는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일반적 쓰임에 따르면 기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4.4.2.에서 다루게 될 ‘내외’가 기준점을 포함한 그 주변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내’는 기준점을 포함하는 부정수 표현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림 8〉 ‘사십 이상’의 의미 범위

- (28) ㄱ. 그는 이 회사에 사십 년 이상 근무했다.
 ㄴ. 나는 매일 사십만 원 이상의 돈을 쓴다.
 ㄷ.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ㄹ. 나이가 사십 이상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은 (28)에서와 같이 수사와 분류사 뒤에 사용하여 부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 (28ㄱ)과 같이 부사구로 작용하여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28ㄴ)처럼 속격 조사를 사이에 넣어 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한정하기도 하는 등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고유어, 한자어 수량 표현 모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며 (28ㄷ)과 같이 수를 숫자로 표현하여도 호환이 자연스럽다. 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한 경우 (28ㄹ)과 같이 분류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28ㄱ)의 참값은 40 이상 50 미만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 만약 50 이상이라면 ‘사십 년 이상’이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40이 넘는 것은 맞지만 50 이상인지는 모를 때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서 참값이 50 이상이어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때는 주관적인 기댓값이 반영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갖는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28ㄱ)의 참값이 100 이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 (28ㄷ), (28ㄹ)의 부정수 표현도 마찬가지로 기댓값을 갖게 되며 그 범위 안에서 참값을 짐작하게 된다. 반면 (28ㄴ)의 경우 ‘매일’이라는 단어를 통해 참값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하루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댓값의 범위도 한정이 없다. 그러므로 참값은 40만 이상 50만 미만에 존재할 확률이 높고, 많아도 100만 미만의 수를 나타낼 것이지만 이론적으로는 1000만, 10억과 같이 그보다 훨씬 큰 수도 참값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9〉 ‘열아홉 명 이하’의 의미 범위

- (29) ㄱ. 제안에 응한 국회의원이 열아홉 명 이하여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 ㄴ.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ㄷ. 내신 성적 3등급 이하는 그 대학에 지원하기 어렵다.



‘이하’는 문장 내 쓰임이 ‘이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하여 활용한다면 (28)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점을 포함하는 일정 방향의 수가 모두 참값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과 비슷하지만 이러한 부정수 표현이 양의 정수를 포함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하’는 무한대의 범위를 갖지 못한다. (29ㄱ)은 0 이상 19 이하의 범위에 참값이 존재하게 된다. (29ㄴ)은 6개월 (0.5년), 1만 5000원 등으로 제시된 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소수에 해당하는 수가 참값이 될 수 있지만 0 미만의 수를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이상’의 범위와는 차이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하’의 의미 범위는 0을 최솟값으로 두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29ㄷ)이 대표적인 예로, 나타내려는 대상이 등급이어서 서수에 해당한다. 서수에는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3등급 이하’의 의미 범위는 1 이상 3 이하이다.

(30) ㄱ. 반경 1km (이내 / 내 / 안)에만 있어라.

ㄴ. 8일 (이내 / 내 /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ㄷ. 성적이 반에서 10등 (이내 / 내 / 안)에 든다.

‘이내’는 ‘이하’와 쓰임이 비슷하다. 다만 ‘이하’는 더 가치 판단에 있어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이내’는 의미 범위 안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준다. (28)에서 ‘이상’ 대신 ‘이하’를 넣거나 (29)에서 ‘이하’ 대신 ‘이상’을 넣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과 달리 (30)의 예에서는 ‘이외’가 ‘이내’ 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내’는 거리나 시간,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와는 문맥상 쓰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하’가 더 많은 상황에서 결합하지만 (30ㄱ)과 같이 거리를 나타낼 때나 (30ㄴ)과 같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내’가 더 자연스럽다. 이는 ‘이내’에서 어조사만 떼어낸 ‘내’, 고유어 ‘안’도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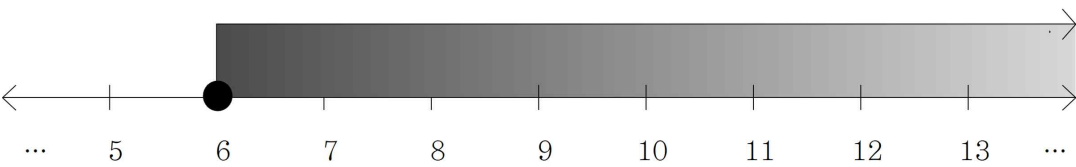


찬가지이다. 세 표현 중 ‘이내’, ‘내’는 문어체에 더 어울리고, ‘안’은 구어체에 더 어울리는 속성이 있지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림 10〉 ‘10등 이내’의 의미 범위

(30ㄷ)의 ‘10등 이내’는 (29ㄷ)의 ‘3등급 이하’와 마찬가지로 서수에 해당한다. 또한 등수는 자연수로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림 10〉과 같이 0을 포함하지 않는 1 이상 10 이하의 범위를 갖는다. ‘10등 내’, ‘10등 안’과 같이 ‘이내’ ‘내’, ‘안’을 사용하더라도 수직선상에는 똑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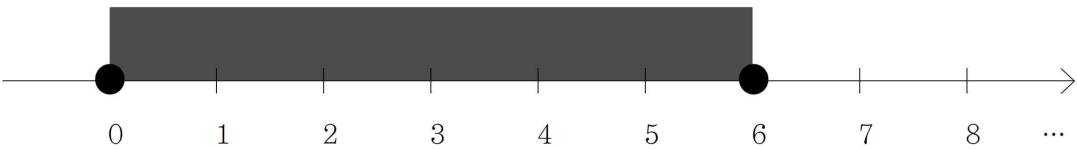
〈그림 11〉 ‘최소 여섯 명’의 의미 범위

- (31) ㄱ. 오늘 안으로 일을 마치려면 최소 여섯 명은 작업을 해야 한다.
- ㄴ. 이 일을 끝내는 데 최소한 세 시간은 걸린다.
- ㄷ. 그는 적어도 사십 세는 되었을 것이다.



가장 작음을 나타내는 명사 ‘최소(最小)’는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이상’과 같은 의미 범위를 나타낸다. ‘이상’은 참값이 기준점보다 큰 수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최소’는 의미 범위 중에서 기준점이 되는 수가 가장 작은 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小)’라는 한자가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방향과는 달리 오른쪽 극한으로 뻗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1ㄱ)을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은 수직선 형태를 볼 수 있다. ‘최소’는 ‘이상’에 비해 참값이 기준점에 더 가까울 확률이 높다. 맥락상 기댓값의 범위가 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최소’와 같은 뜻을 갖는 부정수 표현은 여럿 있다. ‘최소한(最小限)’이 수식언의 역할을 할 때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 ‘적어도’를 사용하면 ‘최소’와 같은 의미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2023)에서는 ‘적어도’의 유의어로 ‘소불하(少不下)’, ‘하불하(下不下)’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의 사용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제어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래어 ‘미니멈’, ‘적다’의 여러 활용형 ‘적어야’, ‘적으면’ 등도 동일한 의미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 ‘최대 6%’의 의미 범위

- (32) ㄱ. 그 은행은 특정 고객에 대해 대출 금리를 최대 6%까지 받기로 했다.
- ㄴ. 그 회사의 시가 총액은 많아야 10억 원인걸.
- ㄷ. *최대한 6% / *최대한 10억 원 / *최대한 5년



(32ㄱ)을 표현한 <그림 12>에서 보듯 ‘최대’의 의미 범위는 ‘이하’를 썼을 때와 같고, 문장 내 활용 측면에서는 ‘최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최대’의 유의어는 ‘최소’의 유의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적어도’가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많아도’, ‘많아야’, ‘많으면’ 등 ‘많다’의 활용형 중에는 표제어로 등록된 것이 없었다. ‘최소’의 유의 표현으로는 ‘적어도’가 자주 사용되는 한편, ‘최대’의 유의 표현으로는 ‘많아야’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ㄴ)에서 보듯 ‘많아야’는 화자의 기준에 비해 적다는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1)의 예에서와 같이 ‘최소한’이 ‘최소’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었던 데 반해 (32ㄷ)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한’은 ‘최대’를 활용한 부정수 표현에 사용될 수 없다.

4.3.2.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유형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에는 ‘초과’, ‘미만’이 포함된다. ‘초과’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미만’의 사전적 정의는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 바깥에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문장에 자주 사용된다.



<그림 13> ‘240kg 초과’의 의미 범위

- (33) ㄱ. 이 엘리베이터는 240kg를 초과하는 하중을 견딜 수 없다.
- ㄴ. 해외에서 구매할 때 구입가가 미화 200불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ㄷ. 책 10권 이상을 지참해야 합니다. / *책 10권 초과를 지참해야 합니다.

ㄹ. 10일이 넘도록 기다려서야 택배를 받을 수 있었다.

‘초과’는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참값이 무한하므로 <그림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초과’는 ‘이상’과 마찬가지로 명사지만 ‘초과’가 사용된 예시를 살펴보면 대부분 (33ㄱ), (33ㄴ)처럼 ‘초과하다’의 활용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33ㄷ)과 같이 구체적인 수와 함께 부정수 표현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초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부정수 표현에 ‘넘다’가 있다. (33ㄹ)의 ‘넘도록’과 ‘넘게’, ‘넘어서야’ 등과 같은 활용형이 일상어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이때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넘어서다’, ‘넘어가다’와 같이 ‘넘다’가 포함된 합성 동사도 부수적인 의미가 추가될 뿐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 어떤 정도를 넘어선 정도를 뜻하는 동사 ‘웃돌다’, ‘상회하다(上廻하다)’도 이러한 유형의 의미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14> ‘25g 미만’의 의미 범위

(34) ㄱ. 당류는 하루에 25g 미만으로만 섭취하세요.

ㄴ. 책은 10권 이하로 빌려야 합니다. / 책은 10권 미만으로 빌려야 합니다.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수직선상에서 기준점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의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량은 0 이상의 수를 가리키므로 (34ㄱ)은 〈그림 14〉와 같은 형태의 의미 범위로 표현된다.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을 나타내므로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람을 나타내어 의미가 중립적인 ‘이하’에 비해 제한의 의미가 강하다. 한편 문장에서 ‘이상’이 ‘초과’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미만’은 제약이 크지 않아 (34ㄴ)과 같은 예문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3.3. 기준점에 수렴하는 유형

이 유형은 기준점을 전체량으로 잡고 그로부터 일정한 비율 범위에 참값이 존재하도록 표현하는 부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준점이 끝점이 되고, 기준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가 시작점이 된다.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 유형을 4.2.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 유형의 시작점과 끝점이 전체 양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의미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량으로 나타내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지점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을 갖는다.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을 사용할 경우 끝점은 명확하나 시작점은 논리적으로만 예측 가능할 뿐 실생활에서는 맥락에 따라 더 좁은 의미 범위만을 가리킨다. 이 유형으로는 순서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시작점의 위치를 파악할 때 서수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림 15〉 ‘50달러의 일부’의 의미 범위

(35) ㄱ. 그는 여행 후 남은 돈 50달러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ㄴ. 직접 키운 배추 이백 포기 가운데 일정량을 친구에게 나눠주었다.

ㄷ. 나는 방학 기간 28일 중 얼마큼을 고향 방문에 쓰기로 했다.

(35ㄱ)에 사용된 부정수의 참값은 0 초과 50 미만의 범위에 존재한다. ‘일부’의 사전적 정의는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여럿으로 나눈 얼마.’로 되어 있다. 50을 둘 이상의 부분으로 쪼갠 수 중 참값이 있으므로 0이나 50은 참값이 될 수 없다. 〈그림 15〉의 범위 안에 있는 수는 모두 참값이 될 수 있는데, 그 확률에 있어서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 가까운 값이나 중간에 가까운 값 중 어느 쪽이 참값일 확률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끝점에 훨씬 가까운 수가 참값이라면 ‘일부’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37)에서 다루게 될 ‘대부분’이나 ‘거의’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끝점에 가까울수록 참값의 확률은 줄어든 것이다.

(35ㄴ)도 기준점 200 미만이면서 0 초과인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일정량(一定量)’은 ‘일부’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비율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의미 범위는 〈그림 15〉와 같은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적당량(適當量)’, ‘적량(適量)’은 ‘일정량’과 비슷한 표현이지만 ‘쓰임에 알맞은 분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참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관적 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35ㄷ)의 ‘얼마큼’은 특정한 부정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와 같은 의미 범위를 가리킨다. 이때 ‘얼마큼’을 ‘며칠’이나 ‘약간’ 같은 다른 어휘로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개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6〉 ‘299명 중 과반수’의 의미 범위



〈그림 17〉 ‘5만 마리 중 다수’의 의미 범위

- (36) ㄱ. 국회의원 299명 중 과반수가 남성이다.
- ㄴ. 현재 남아 있는 코알라 5만 마리 중 다수가 인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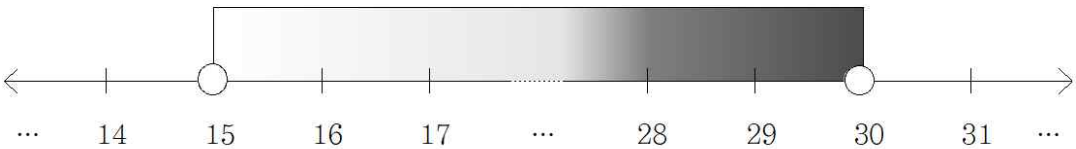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36ㄱ)의 경우 〈그림 16〉과 같이 149.5 초과 299 미만의 의미 범위를 갖게 된다. 의미 범위의 시작점을 149.5 이상이 아닌 149.4 초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過)’의 훈이 ‘넘다’이고, (33ㄹ)에서 다루었다시피 ‘넘다’는 ‘초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과적(過積)’, ‘과속(過積)’ 등의 의미를 고려하면 ‘과(過)’ 한 글자만으로도 ‘초과(超過)’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끝점을 299 미만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범위를 299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多數)’는 수효가 많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다수’를 (36ㄴ)과 같이 숫자와 함께 제시할 경우에는 그 수를 쪼개었을 때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많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 다른 부분보다 많으려면 적어도 절반보다는 큰 수여야 하므로 ‘과반수’와 같은 의미 범위를 갖게 된다. (36ㄴ)의 코알라가 정확히 5만 마리라고 할 때, 기준점인 5만 마리의 절반인 2만 500마리 초과, 5만 마리 미만을 의미 범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7>과 같이 기준이 되는 수를 끝점으로 두고 그 절반의 수를 시작점으로 두되 시작점과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게 되며 이때 범위 내에서는 참값이 될 가능성은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다수’의 유의어로 어지간히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당수(相當數)’와 수효가 많음을 의미하는 ‘과수(過數)’가 설정되어 있다. ‘상당수’는 ‘다수’와 비슷한 의미 범위로 자주 사용되지만 ‘과수’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인지 일상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의미 범위를 뜻하는 문장 중 ‘5만 마리 중 절반 이상’과 같은 문장 구성은 자주 사용되지만 ‘5만 마리 중 절반 초과’와 같은 문장은 사용이 부자연스러운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8> ‘30명 중 대부분’의 의미 범위

(37) ㄱ. 입학생 30명 중 대부분이 작가를 지망했다.



ㄴ. 5156만 국민의 대다수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

ㄷ.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거의 3년이 되었다.

ㄹ. 이 공연장은 관람석이 오백 석 가까이 된다.

‘대부분(大部分)’은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로 ‘일부’나 ‘다수’보다 좁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 <그림 18>을 보면, 시작점과 끝점은 <그림 16>, <그림 17>과 차이가 없지만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36ㄱ)에서는 의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가 같은 확률로 참값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37ㄱ)의 참값은 30에 가까워야만 한다. 따라서 16이나 17 같은 수는 참값이 될 확률이 매우 적고, 29나 28 같은 수는 참값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37ㄴ)의 ‘대다수(大多數)’, (37ㄷ)의 ‘거의’도 ‘대부분’과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 ‘대부분’, ‘대다수’, ‘거의’의 유의어 ‘대개(大概)’, ‘대체로(大體로)’, ‘주로(主로)’, ‘일추’도 마찬가지다. ‘거개(舉皆)’, ‘서기(庶幾)’, ‘장근(將近)’, ‘거의거의’는 실생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모두 비슷하여 <그림 18>과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

(37ㄷ)의 ‘거의’와 (37ㄹ)의 ‘가까이’도 같은 의미 범위를 나타낸다. ‘거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이므로 용례를 보지 않고도 두 단어가 유의어임을 알 수 있다. 부정수 표현과 관련하여 표제어 ‘가까이’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2023)에서는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일정한 수에 거의 비슷한 상태로.’로 내리고 있다. 두 사전 모두 시간과 관련된 예문만 다루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2023)의 다른 표제어에서 뽑은 예문 (37ㄹ)에서 보듯 시간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에서도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림 19〉 ‘십 년이 다 되도록’의 의미 범위

(38) ㄱ. 집을 떠난 지 십 년이 다 되도록 편지 한 장 올리지 않고 있었다.

ㄴ. 많이 와도 천 명 안 되게 올 거예요.

ㄷ. 그 시험의 합격률은 50%에 못 미치는 정도이다.

ㄹ. 그녀는 이십이 될동말동한 앳된 얼굴을 갖고 있었다.

ㅁ. 재산이 겨우 벼 천이 될까 말까 하다.

(38ㄱ)은 동사 ‘되다’를 사용하여 참값이 기준점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 부정적(否定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8ㄱ)을 표현한 〈그림 19〉는 끝점에 가까울수록 참값일 확률이 높아지지만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38ㄴ)도 마찬가지로 참값이 기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음이 나타난다. (38ㄷ)은 ‘(분량이나 수치 따위가 일정한 기준치에) 가 닿거나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미치다’를 사용한 부정수 표현이다. ‘되다’를 활용한 표현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에서 참값이 가까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8ㄹ)의 ‘될동말동하다’는 ‘일 따위가 어떤 수준이나 정도에 이를 듯 말 듯 하다.’로 정의되는 동사로 기준점과 참값의 차이가 매우 적을 때 사용한다. 국어 사용자들은 사전에서 정의한 ‘이룰 듯 말 듯’이나 (38ㅁ)의 ‘될까 말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표제어에 올라 있지 않은 어구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38)의 부정수 표현은 〈그림 19〉와 같은 의미 범위를 나타내지만 (38ㄱ)~(38ㄷ)은 항상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데 반하여, (38ㄹ)~(38ㅁ)은 일반적으로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 범위를 갖지만 문맥에 따라 끝점을 포함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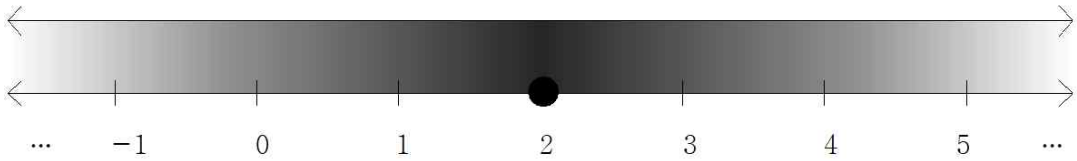
4.4.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

이 유형은 참값에 가까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정수를 나타낸다. 이때 참값의 기대 확률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대칭을 이루며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유형의 부정수 표현은 수직선상에서 모두 같은 모양을 나타내지만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4.4.1. 유형과 4.4.2. 유형은 편의상 구분하였지만 맥락에 따라 상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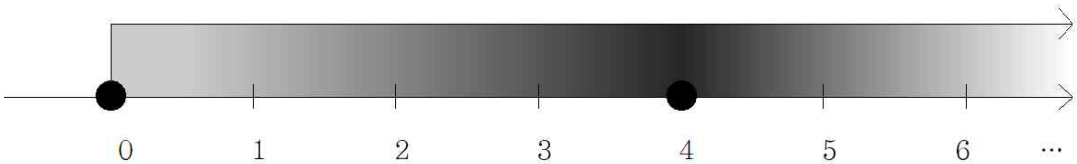
4.4.1. 어림수를 제시하는 유형

이 유형은 화자가 대강 짐작으로 파악한 수를 제시하는 부정수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부정수 표현은 부사가 수량사 혹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부정수 표현의 형태적 특징은 3.3.3.에서 대부분 다루었다.





〈그림 20〉 ‘약 2도’의 의미 범위



〈그림 21〉 ‘근 나흘’의 의미 범위

(39ㄱ). 오늘 낮 평균 기온은 약 2도로 예상된다.

ㄴ. 근 나흘 계속 내린 축축한 단비를 맞고.

ㄷ. 날씨가 좋아서 한 20분 걸었다.

(39ㄱ)의 참값은 기준점인 2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 2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차 낮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 20〉은 이 유형의 부정수가 갖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음수로 존재하기 어려운 대상을 헤아리는 경우에는 수직선이 왼쪽으로 무한히 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9ㄴ), (39ㄷ)이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림 21〉과 같이 0 미만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



(40) ㄱ.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대략 이십 년이 걸린다.

ㄴ. 그녀의 나이는 서른 언저리이다.

ㄷ. 오늘 삼만 원 정도 갖고 왔어.

ㄹ. 그 사람은 오십 세가량 되어 보인다.

ㅁ.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왔다.

ㅂ. 1950년 (즈음 / 무렵)에는 형편이 어려웠다.

(40)에 사용된 표현들을 수직선상에 옮기면 <그림 20>이나 <그림 21>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된다. 참값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수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존재할 참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40ㄱ)의 ‘대략’은 ‘대충’, ‘대강’ 등과 비슷한 말로 자세하지 않은 내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 표현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도 두루 사용되어 일상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0ㄴ)의 ‘언저리’ 또한 주변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 양상은 부정수 표현을 위해 생긴 단어가 다른 것도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부정수 표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여 의미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40ㄷ)의 명사 ‘정도(程度)’, (40ㄹ)의 접미사 ‘-가량’, (40ㅁ)의 접미사 ‘-쯤’은 사전적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정도’는 ‘그만큼가량의 분량.’을 뜻하는 명사, ‘-가량’은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쯤’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을 더하는 접미사로 정의되거나 정도의 뜻을 더하는 말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품사가 다르더라도 이들 세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ㅂ)은 시간 표현에만 쓸 수 있는 부정수 표현으로 의존명사 ‘즈음’은 ‘일이 어찌 될 무렵.’으로 정의되고, 의존명사 ‘무렵’은 ‘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으



로 정의된다. 따라서 ‘즈음’과 ‘무렵’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0ㄱ)의 ‘-쯤’과 (40ㄴ)의 ‘즈음’은 둘 다 부정수 표현에 사용되기 때문에 약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품사와 사전적 정의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4.4.2. 교차점을 제시하는 유형

이 유형은 교차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참값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이 유형의 기준점을 ‘교차점’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두 방향으로 뻗는 범위가 기준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이다. 4.4.1.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의미 범위에 기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값일 가능성은 기준점에서 가장 높고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4.4.1.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1) ㄱ. 올해 국제 경제 성장률은 1퍼센트 내외로 예상된다.

ㄴ. 이 글은 15세기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ㄷ. 입장권 가격은 구천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다.

(41ㄱ)과 (41ㄴ)은 수직선상에서 4.4.1.의 〈그림 20〉과 같이 표현되고, (41ㄷ)은 4.4.2.의 〈그림 21〉과 같이 표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부정수 표현의 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정수 표현에서 하한값을 갖는 경우, 시작점이 항상 0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교 내신 2등급 전후’라는 예시가 있다면 고교 내신은 스테나인(stanine) 점수를 사용하므로 ‘전후’ 자체는 양측으로 무한대의 범위를 지니더라도 나타내는 대상을 고려할 때 수직선상에서 1 이상 9 이하의 범위만을 가질 수 있다.

(41ㄱ)의 ‘내외(内外)’, (41ㄴ)의 ‘전후(前後)’, (41ㄷ)의 ‘안팎’은 모두 방향 반의



어를 사용하여 기준점 주변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 표현은 동아시아권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중국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左右’, ‘上下’는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5. 결론

지금까지 부정수 표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부정수 표현에 대해 정의한 후 그에 해당하는 표현을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부정수 표현은 국어에서 특히 발달하였으나 따로 수집된 바가 적었고,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연구자의 것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사전을 참고할 때에도 비슷한 두 단어의 정의가 상호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잦았고, 몇몇 단어의 경우 그 품사를 서로 다르게 정리하거나 해당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사전이 존재하기도 하여 부정수 표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3장에서는 형태적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부정수 표현의 핵심 부분인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와 수량사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각 절을 품사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부정수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의 품사는 다양하지 않아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은 수사나 수 관형사로만 이루어진 것과 다른 품사가 함께 복합된 것으로, 부정 표현이 선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각각 관형사, 명사, 부사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부정수 표현은 부정의 의미가 각각 명사, 명사구, 동사에 담긴 것으로 나누어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부정수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 범위를 기준으로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 단측 분포 부정수 표현, 양측 분포 부정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부정의 의미의 기준이 되는 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존재하는 부정수 표현은 범위 한정, 시작점과 끝점 중 하나만 존재하는 부정수 표현은 단측 분포, 기준점이 하나 존재하는 부정수 표현은 양측 분포로 이름 붙였다. 그 후 각 기준점의 특성에 따라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중 특징적인 부정수 표현을



뽑아 수직선상에 표현하였다.

국어 부정수 표현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것보다 방대하고 다양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 선행 연구가 적고 단어 정립도 매끄럽지 않아 부족한 실력으로 분류를 해나가야 했다. 또한 상체하여 쓸 수 있는 표현, 비슷한 의미를 갖더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본고에서 다룬 단어들을 모아 표로 정리해보았다.

부정수 표현			4.2.		4.3.			4.4.	
			범위 한정		단측 분포			양측 분포	
			4.2.1.	4.2.2.	4.3.1.	4.3.2.	4.3.3.	4.4.1.	4.4.2.
			균등 분포	불균등 분포	기준점 포함	기준점불포함	기준점 수렴	어림수 제시	교차점 제시
3.2.	한 단어	3.2.1. 수량사로만	한둘, 서너, 몇, 몇-						
		3.2.2. 타품사 복합어	-수, 수-, 기-, -대	-남은, -여				-가랑, -쯤	
3.3.	부정 표현 선행	3.3.1. 관형사 수식						약, 근, 한	
		3.3.2. 명사 수식			최소, 미니멈, 최대, 맥시멈, 최고, 최저, 최하				
		3.3.3. 부사 수식					거의, 얼추	대략, 대충	
3.4.	부정 표현 후행	3.4.1. 부정 의미 명사에		남짓	이상, 이하, 이내, 내, 안	초과, 미만		언저리, 정도, 즈음, 즈, 무렵	내외, 전후, 안팎
		3.4.2. 부정 의미 명사구에					일부, 일정량, 얼마큼, 과반수, 다수, 대부분, 대개, 대다수		
		3.4.3. 부정 의미 동사에				넘다, 웃돌다, 밀돌다, 상회하다, 하회하다	되다, 될까 말까 하다, 안 되다, 못 미치다, 될동말동하다		

〈표 1〉 부정수 표현의 유형



이를 통해 한 단어로 된 부정수 표현 유형과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 유형이 거의 일치하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부정 표현 중에는 범위 한정 부정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유형에 가장 많은 부정사 표현이 존재하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정수 표현이 대부분 부정 의미가 동사에 담긴 유형임을 알게 되었다. 표에서 제시한 부정수 표현은 대표 형태일 뿐이고, 이형태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칸의 항목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부정 의미가 명사에 포함된 부정수 표현이 가장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부정 의미가 명사구에 포함된 부정수 표현도 엄밀히 구분하면 부정 의미가 명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확연히 많았다.

부정수 표현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표현을 수집하는 동안 일상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정수 표현을 다수 접했다. 이는 부정수 표현이 정확한 수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언어 능력을 기르는 동안 부정수 표현에 대해 접하고 고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념과는 달리 다양한 부정수 표현은 서로 다른 여러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 표현의 각 표현의 형태와 의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정수 표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는 한편, 학교 교육에서 부정수 표현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교육부(2022),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8].
- 구본관(2001), 「수사와 수 관형사의 형태론」, 『형태론』 3권 2호, 도서출판 박이정, 265-284.
- 국립국어원(2023),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김동소(2004), 「동아시아의 여러 언어와 한국어- 한국어 수사의 대조 언어학적 연구」, 『語文學』 83, 한국어문학회, 1-28.
- 김선미(2009), 「한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분석」, 『시민인문학』 Vol.17,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9-189.
- 김선효(2005), 「국어의 분류사와 문법화」,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2005, 10 7-123.
- 김성규(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冠嶽語文研究』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19-432.
- 김수석(1996), 「15세기 국어의 복합어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근(1996), 「수량사의 영역 해석 고찰」, 『語文學』 57, 한국어문학회, 21-56.
- 김유경(2016), 「중세국어 수(數) 표현 연구」,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인균(2008), 「국어의 수사 범주론」,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1-39.



- 김종욱(1992), 「15세기 국어의 複合語 研究」,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리웨이웨이(2018),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철우(2012), 「양화사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23.
- 샤오웨이(2015), 「한국어 부류성 단위명사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용주(1994), 「부정수 '여남은'의 조어론적 형태와 의미특징」, 『어문학』 55, 한국어학회, 263-280.
- 시정곤(2000),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언어』 25, 한국언어학회, 73-101.
- 신호철·이현희(2009), 「한국어 수량 구성의 유형과 특성」,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201-227.
- 양용준(2019), 「영어와 한국어의 양화사 의미와 중의성 연구」, 『영어영문학』 24권 2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29-250.
- 양해승(2014), 「한국어의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 표현 연구」, 『국어학』 71, 국어학회, 127-188.
- 여숙상 외(2000), 『신현대한어 800사』, 동양문고.
- 위평량(2004), 「“여러”의 어원」,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21-228.
- 우형식(2002), 「한국어 인간성 분류사의 대조언어학적 검토」, 『比較文化研究』 13,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05-124.
- _____(2003), 「동 아시아 주요 언어에 나타나는 수 분류사 구성 형식의 대조」, 『언어』 28권 3호, 한국언어학회, 427-449.
-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53-72.
- 윤희수·이선웅(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량사구 연구: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139-171.



- 이기동(1988), 「[윽김]인지문법의 소개」, 『한글』 200, 한글학회, 359-410.
- _____(1989), 「언어 주관성의 문제」, 『한글』 206, 한글학회, 165-196.
- 이남순(1982), 「單數와 複數」, 『국어학』 11, 국어학회, 117-141.
- _____(1992), 「計算方式과 數量詞 構成」, 『(姜信沆教授回甲紀念)國語學論文集』, 기곡 강신항선생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태학사, 647-668.
- _____(1995), 「수량사 구성의 몇 문제」,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43-67.
- 이선희(2003),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觀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어언어연구』 17,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25-250.
- 정희창(2013), 「국어 수량 표현의 인식 방법과 의미 - "한 번", "두 번", "한두 번"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421-437.
- 조규태(2006),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語文學』 94, 한국어문학회, 81-117.
- 조용상(1997), 「중세 국어의 수량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채옥자(2013), 「한국어의 수량범주와 그 표현 양상」, 『국어학』 68, 국어학회, 225-251.
- _____(2014), 「한국어 주관적 수량 표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6, 한국어 의미학회, 351-377.
- 채완(1982), 「國語數量詞句의 通時的 考察-어순변화의 일례로서-」,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55-170.
- _____(1983), 「국어 數詞 및 數量詞句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34.
- _____(1990), 「國語 分類詞의 機能과 意味」,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67-180.



- 최기용(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語學研究』 37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45-482.
- 최정도(2017), 「한국어 수량 표현의 계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송화(1999), 「수사와 수량사구」, 『사전편찬학연구』 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65-289.
- 홍사만(2008), 「한·일어 분류사의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44, 언어과학회, 1-27.
- 홍윤표(1994), 「中世國語의 數詞에 대하여」, 『국어학논문』 1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9-55.
- Philip J Mohan(1984), 「The Meaning of Indefinite Number Terms for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5(1), 147-148.
- 刘月华 等(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茹益益(2011), 「《宋书》概数词的称数法研究」, 『三峡論壇』 5, Airiti, 66-71.
- 隈江 月晴(1960), 「幼児における不定数量語の意味の測定 I」, 『教育心理学研究』 8, 教育心理学研究, 106-111, 134.
- 张静静(2007), 「秦汉简帛中不定数的表示形式及发展」, 『广东海洋大学学报』 27(2), 33-37.

